

ASEAN 진출 확대 방안

– 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베트남을 중심으로 –

2002 · 5



KOTRA

아시아 · 대양주 지역 본부

〈요 약〉	5
제 1 부 ASEAN 개요 및 특성	11
Ⅰ. 동남아국가연합(ASEAN)	13
Ⅱ. ASEAN 시장의 특성	19
Ⅲ.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21
제 2 부 ASEAN 주요 국가별 진출 확대 방안	27
제 1 장 태국	29
Ⅰ. 시장 개관	31
Ⅱ. 최근 경제동향	33
Ⅲ. 우리나라의 대태국 진출현황	38
Ⅳ. 진출 확대방안	41
제 2 장 말레이시아	47
Ⅰ. 시장 개관	49
Ⅱ. 최근 경제동향	52
Ⅲ.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진출현황	59
Ⅳ. 진출 확대방안	64
제 3 장 인도네시아	73
Ⅰ. 시장 개관	75
Ⅱ. 최근 경제동향	78
Ⅲ.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진출현황	82
Ⅳ. 진출 확대방안	86
제 4 장 베트남	93
Ⅰ. 시장 개관	95
Ⅱ. 최근 경제동향	97
Ⅲ.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진출현황	103
Ⅳ. 진출 확대방안	109

제1부 ASEAN 개요 및 특성

동남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67년 8월 방콕선언을 통해 출범하였음

처음에는 선언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속력이 강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였으며, 회원국도 부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확대되었음

한편, ASEAN은 대선진국 시장개척, 인력자원개발, ASEAN 경제협력을 위해 호주, 일본, 미국, 중국 등 10개국과 역외협의체제를 수립하였고, 파키스탄과는 부분대화관계를 맺고 있음

ASEAN은 1997년 12월 한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 초청하여 『ASEAN + 3』을 발족했는데, 이는 ASEAN 10개국만의 단일시장으로는 다른 경제블록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적극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ASEAN은 인구 5억, 총 GDP 약 5,400억불 규모의 시장이며,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ASEAN 수출은 165억불로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임

우리나라의 대ASEAN 투자는 1988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매년 3-5억불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져 2001년 누계기준 47억불을 기록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과 광업이며, 제조업 비중이 65%임

ASEAN은 ‘떠오르는 시장(Emerging Market)’으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말 미-베 무역협정의 발효로 신규 수출유망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회수출기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음

AFTA는 EC 통합, NAFTA 결성, 동구권 개방 등에 따른 세계적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지역협력체로서의 ASEAN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93년 출범되었음

AFTA는 역내교역에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의 경제통합으로서 관세인하, 수량제한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AFTA는 당초 1993년 1월 1일부터 향후 15년간 역내국간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로 하였으나 2000년 10월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최초가입 6개국은 2002년까지 모든 관세인하품목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합의함

AFTA에 의한 우대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하려는 제품이 수출국의 CDPT 대상품목에 포함되고, CEPT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관세율이 20% 이하이며, 해당제품의 ASEAN 내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AFTA의 출범으로 ASEAN 역내교역이 확대되 ASEAN 국가들의 산업고도화가 추진될 전망이어서 ASEAN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FTA의 교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ASEAN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ASEAN 국가에 대한 투자는 역내시장을 목표로 한 ASEAN 시장 지향적 투자가 유망하다고 여겨짐

제2부 ASEAN 주요 국가별 진출확대 방안

1 태 국

태국은 외국투자기업들의 가공수출을 위한 산업용 기계류, 전자부품 등 자본재와 원부자재 등이 수입을 주도하며, 주요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의 약 70%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정도로 대외의존적임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은 1996년 27억불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0년 20억불대를 회복하였으나 2001년 경기침체 여파로 18.5억불로 감소했으며, 금년 1/4분기에는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988년 이후 본격화되어 2001년 말까지 총 202건, 5.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투자분야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제지 등임

태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 에이전트를 발굴해 연간 350억불 규모에 달하는 공공부문 조달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대태국 수출유망품목으로는 전자부품, 통신기기, 기계 및 부품 등과 같은 자

본재임

효율적인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ASEAN 전체를 겨냥하면서 태국 투자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100% 활용하는 한편 적합한 현지 파트너를 확보해야 함. 태국 투자청에서 외국인 투자시 정보통신, 자동차, 패션(보석, 가죽, 의류), 농산물, 고부가가치서비스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과거 싱가포르를 통한 중계무역에서 벗어나 대부분 직교역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추진하면서 동남아의 중심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중국계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내구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중고가품에 대한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1997년 43.6억불을 기록한 이후 약세를 지속해 지난해에는 26.3억불로 감소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무선전화기, PCB, 승용차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반도체, 합성수지 등 산업용 중간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1989년부터 본격화되어 2001년까지 누계기준 243건, 4.3억불을 기록했으며, 주요 투자 대상업종은 비금속, 전자, 기초금속, 석유정제 등임

말레이시아에서는 선진국과 거래하던 상당수의 바이어들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공급이 가능한 아시아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할 것임

아울러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계설비 수요는 노후설비 교체 및 공장 자동화에 따른 자본재 수요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자본재 수출이 유망함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바이어의 구매의사 결정시 가격이 최고의 구매의사 결정요소로 자리잡았고,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자본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42.3%, 38.0%씩 증가했으나 2001년에는 6.4% 감소한 32.8억불을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전자제품 및 부품, 섬유직물, 가죽제품, 건설중장비, 발전기 등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규모는 2001년까지 누계기준으로 509건, 18.4억불로 198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분야는 봉제, 신발, 건설, 무역, 운송, 완구, 화학, 전기전자 등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진출시에는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급감,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부족한 고급 생산기술인력,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급상승, 정치 및 치안불안,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함

인도네시아로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계층 분화에 대비해야함. 아울러 현지 화교자본을 활용하되 대부분 일본기업과의 독점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화교 1세대 보다는 최근 신규 업체를 설립하면서 경제계로 진출하고 있는 화교 2세대들과의 연계를 통한 수출 추진전략이 필요함

효율적인 대인도네시아 투자를 위해서는 저렴한 인건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베트남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관련 시장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민간부문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시장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은 직교역이 시작된 1988년 0.6억불에서 지난해에는 21억불을 넘어서면서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베트남 은행들의 L/C 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재 1억불 정도의 수출미수금이 남아있어 수출상당시 주의가 요망됨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2년 처음 투자가 시작된 이후 2001년까지 총 263건, 6.8억불을 기록하였지만, 투자가 대부분 소규모로서 노동집약적인 봉제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지역별로도 우리나라의 투자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 임금인상, 노사분규 등 부작용도 빈번하므로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요구됨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백화점과 같은 현지 유통망에 대한 진출확대가 요구되고, 현지시장이 브랜드 시장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됨

의류, 신발류, 가방, 봉제완구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 투자해온 우리나라는 대만과 더불어 2001년말 발효된 미-베 무역협정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베트남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ASEAN 국가를 목표로 한 우회수출 전진기지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섬유, 신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오토바이 및 부품 포함), IT 등에 대한 투자진출이 유망함

제 1부

ASEAN 개요 및 특성

- I. 동남아국가연합(ASEAN)
- II. ASEAN 시장의 특성
- III.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한준우

KOTRA 아시아·대양주지역 본부장

I. 동남아국가연합(ASEAN)

1. 개요

- 명칭 :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결성배경 : 1960년대 중반 월남전의 본격화 등 동남아제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 대두
- 출범 : 1967년 8월, ASEAN 5개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 으로 최초 결성
- 성격
 - 초기에는 실질적인 협력체제이기 보다는 선언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속력이 강한 지역협력 기구적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음
 -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동남아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개념과 비동맹정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회원국 : 총 10개국

【 동남아 국가연합 】

국 가 명	가 입 년 도	비 고
싱가포르	1967년 8월 8일	최초 5개국
태국	1967년 8월 8일	
말레이시아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1967년 8월 8일	
필리핀	1967년 8월 8일	
부루나이	1984년 1월 8일	추가 가입국
베트남	1995년 7월 28일	
라오스	1997년 7월 23일	
미얀마	1997년 7월 23일	
캄보디아	1999년 4월 30일	

2. 주요 기구

□ 정상회의(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976년 2월 공식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고, 1992년 이후에는 매 3년마다 공식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공식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공식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함

□ 외무장관회의(AMM : ASEAN Ministerial Meeting)

- 1967년 ASEAN 창설 방콕선언에 따라 매년 개최되며 정상회담이 매 3년마다 개최됨에 따라 ASEAN의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경제장관회의(AEM : Meeting of the ASEAN Economic Ministers)

- ASEAN 정상회담 개최준비를 위해 1975년 11월 제1차 경제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을 효시로 매년 1-3회 정도 씩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어 ASEAN의 경제협력 강화, 역내 균형발전 등에 관해 협의

□ 상임위원회(ASC : ASEAN Standing Committee)

- 외무장관회담(AMM) 미개최 기간중 제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차기 외무장관회담 개최국의 외무장관이 의장을 맡게됨

□ 사무국(ASEAN Secretariat)

- 5년 임기의 사무총장. 사무국 운영, 외무장관회담 및 상임위로부터 부여된 임무 등을 수행하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소재

3. ASEAN의 역외협의체

○ 역외협력 배경

- ASEAN 국가의 대선진국 시장개척, 인력자원개발, ASEAN 경제 협력을 위한 선진국의 금융, 기술 확보 필요성으로 대화 개시

○ 역외협의체제 수립국가 : 10개국

- 호주(1974), 뉴질랜드(1975), 일본(1977), 미국(1977), 캐나다(1977), EU(1977), 한국(1991), 인도(1995), 러시아(1996), 중국(1996) 등 10개국

- 부분대화관계수립국가 : 파키스탄(1993)

- ASEAN 10개국과 역외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가하는 확대 외무장관회의(Post Ministerial Conference : PMC)가 1979년부터 년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국제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10+10 회의(전체회의)와 ASEAN 10개국이 역외 대화 상대국중 1개국과 쌍무관계를 협의하는 10+1회의(개별 회의)가 있음

4. ASEAN + 3

- ASEAN은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비공식 정상회의(97.12)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 초청하여 동아시아지역과의 협력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ASEAN과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중·일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비롯됨
- ASEAN 10개국만의 단일시장으로는 다른 경제블록에 비해 규모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 블록 적극 모색

5. ASEAN 지역의 시장규모

(단위 : 백만명, 천s/km, US\$백만)

국 가 명	인 구('99)	면 적('99)	GDP('99)
ASEAN	508.3	4,482	540,654
싱가포르	4	1	84,945
태 국	60	513	124,369
말레이시아	23	330	79,039
인도네시아	207	1,905	142,511
필리핀	74	300	76,559
부루나이	0.3	6	n/a
베트남	78	332	28,682
라오스	5	237	1,432
미얀마	45	677	n/a
캄보디아	12	181	3,117

자료원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 ASEAN지역은 1999년 기준 총인구가 5억명이고, 1999년 수출은 1998년 3,166억불 보다 7.7% 증가한 3,411억 불에 달했음. 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라 수입도 1998년 2,595억불에서 1999년에는 7.7%가 늘어난 2,795억불을 기록함
-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1999년 ASEAN 역내와 역외 수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ASEAN 역외 수출은 8%가 증가하였고, 역내 수출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다가 7.6% 증가로 반등
- ASEAN의 주요 역외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EU로의 수출은 461억불에서 557억불로 18.7% 증가하였고, 대일본 수출은 1998년 347억불에서 7.2% 증가한 376억불에 달했으며, 대미국 수출은 6.3% 증가함

6. 한국과 ASEAN과의 교역현황

- ASEAN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대 ASEAN 수출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1998년 24.7% 감소한 153억불을 기록했다가 1999년부터는 증가세로 반전해 1999년에는 177억불로 15.5% 증가했고, 2000년에는 13.7% 증가한 201억불을 기록함
- 2001년에는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 ASEAN 수출은 18.3% 감소한 165억불로 축소되었지만, 금년 1분기에는 수출 감소폭이 3.2%로 크게 축소되면서 점차 호전되고 있음
- 수출 호부진 품목(2002년 1/4분기 기준)
 - 호조품목 : 항공기 및 부품(3,287.3%), 건전지/축전지(231.2%), 평판디스플레이(139%), 컴퓨터(88.2%), 회전기기(81.4%)
 - 부진품목 : 전자응용기기(-65.3%), 레일 및 철구조물(-61.3%), 반도체제조장비(-60.3%), 기초유분(-57.4%)

【 한국의 대 ASEAN 연도별 수출입 현황 】

(단위 : US\$백만, %)

년 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6	20,310	13.0	12,074	19.1	8,236
1997	20,366	0.3	12,550	3.9	7,816
1998	15,327	-24.7	9,136	-27.2	6,191
1999	17,708	15.5	12,249	34.1	5,458
2000	20,134	13.7	18,173	48.4	1,960
2001	16,459	-18.3	15,916	-12.4	543
'02.1-3	4,252	-3.2	4,033	-14.1	219

【 한국의 대 ASEAN 국가별 수출현황 】

(단위 : US\$백만, %)

국가명	1999		2000		2001		2002.1-3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전체수출	143,685	8.6	172,268	19.9	150,439	-12.7	35,768	-10.9
ASEAN	17,708	15.5	20,134	13.7	16,459	-18.3	4,252	-3.2
싱가포르	4,922	21.1	5,648	14.8	4,080	-27.8	940	-22.1
태국	1,735	19.6	2,015	16.2	1,848	-8.3	738	50.6
말레이시아	3,647	1.3	3,515	-3.6	2,628	-25.2	717	9.5
인도네시아	2,539	42.3	3,504	38.0	3,280	-6.4	705	-24.3

국가명	1999		2000		2001		2002.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필리핀	3,129	10.5	3,360	7.4	2,535	-24.5	677	11.3
베트남	1,445	6.2	1,686	16.7	1,732	2.7	408	4.7
미얀마	187	26.6	289	54.8	232	-19.8	32	-60.6
캄보디아	80	29.5	96	19.6	102	5.9	27	11.3
부루나이	14	-24.6	16	17.3	16	1.4	6	123.8
라오스	10	102.9	4	-57.5	6	40.3	1	-51.4

자료원: 한국 관세청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

7. 한국과 ASEAN간 투자현황

- 대ASEAN 투자는 1988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1995년 6.1억불을 최고로 1997년 5.9억불을 기록한 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ASEAN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ASEAN 자체의 정치 혼돈 지속, 인건비 상승,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여력 부족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업종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ASEAN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어 있음(ASEAN 직접투자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약 65%)

【 한국의 대 ASEAN 직접투자현황 】

(단위 : 건, %, US\$천)

연 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 수	증 감 율	금 액	증 감 율
1988	33	371.4	32,012	-75.0
1989	69	109.1	91,617	186.2
1990	119	72.5	238,692	160.5
1991	136	14.3	330,552	38.5
1992	106	-22.1	271,364	-17.9
1993	106	0.0	168,381	-38.0
1994	275	159.4	257,235	52.8
1995	183	-33.5	605,564	135.4
1996	219	19.7	443,652	-26.7
1997	171	-21.9	594,933	34.1

연 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 수	증 감 율	금 액	증 감 율
1998	62	-63.7	450,045	-24.4
1999	114	83.9	401,120	-10.9
2000	181	58.8	280,674	-30.0
2001	179	-1.1	305,471	8.8
합계	2,030		4,708,050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주 : 총투자기준

II. ASEAN 시장의 특성

□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 '세계경제의 성장센터' 로서 위치 견지 (중국 등 동아시아 포함)
 - 美·日·유럽(선진국):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
- 베트남, 미얀마 등이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
 - 2001년 연말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베트남이 신규 수출유망시장 및 해외 생산기지로 각광
 - 2001년 상반기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유치 10.5억불로 전년대비 3배 증가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급증)
 - 미얀마의 대 서방 갈등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량 지속적 확대

【 한국의 대 베트남, 미얀마 수출현황 】

(단위 : US\$천, %)

구 분	베트남	미얀마
1998	1,361 (-15.1)	148 (8.2)
1999	1,445 (6.2)	187 (26.6)
2000	1,686 (16.7)	289 (54.8)
2001	1,731 (2.7)	232 (-19.8)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 외국인투자 증가 배경
 - 1980년대에 들면서 동남아 각국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성장의 최적 정책수단으로 인식, 인센티브 개발 등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전개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대응수단으로 일본기업의 동남아 진출 러시
 - 미 유럽 기업들도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해 1990년대 초반부터 투자진출 강화
 - 한국기업들은 1980년대 말부터 상대적 저임금의 동남아 투자진출이 가시적으로 증가

○ ASEAN 국별로 특화된 외국인투자 유입

【국별 외국인투자 유치 주력업종】

국 명	외국인투자 유치 주력 업종
싱가포르	전자, 금융, 유통 등
말레이시아	전자(폐낭), 자동차(국민차 '프로톤') 등
태 국	자동차(동남아의 디트로이트), 전자 등
필 리 핀	전자, 섬유 등
인도네시아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베 트 남	섬유, 신발, 피혁 등 경공업

○ 완제품 조립산업형 공업구조로 연관산업 취약

- 완제품 조립산업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유치되면서 연관산업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
- 이로 인해 중간재, 원·부자재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

- 아시아 NICs를 경제성장 모델로 채택함에 따라 수출주도형 성장패턴 골격 유지
-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 : 약 70 % (2000년 기준, ASEAN 평균)
- 美·日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로 선진국 경기에 민감한 경제 구조

□ 화교중심 상권

- 유통, 무역 등 상권의 경우 화교들이 장악
 - 싱가포르(77%), 말레이시아(25%), 인도네시아(5%), 태국(13%), 필리핀(2%) 등 대부분의 동남아지역 상권을 지배 (팔호 안은 중국계 인구구성비)
 - 반면, 제조업은 외국인투자(다국적 기업)가 주도
- 전통적으로 화교 네트워크가 동남아 비즈니스를 좌우
 - 싱가포르, 홍콩 등을 거점으로 중국 본토와도 연결된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III. ASEAN자유무역지대(AFTA)

1. 추진 배경

- EC 통합, NAFTA 결성, 동구권 개방 등에 따른 세계적인 투자 유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필요성 대두됨
- 지역협력체로서의 ASEAN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전략적인 목적

2. 설립 목적

- AFTA의 궁극적인 설립목적은 세계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ASEAN의 경쟁력을 높여 보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가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제거하여 역내 국가간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됨
- 역내 국가간 교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ASEAN 국가들의 경쟁력이 극대화되고 효율화된다는 것으로 이와 함께 역내 소비자들은 역내에서 보다 양질의 제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역내교역도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임
- 또한 역내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리게 되어 외국인들의 대 ASEAN 지역 투자도 증가함으로써 동 지역 경제성장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즉, AFTA를 추진하게 된 본래 의도는 외국자본의 유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역내국가간의 관세인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ASEAN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 교역이 역외 국가들과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AFTA의 형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역내국가간의 교역창출이 비교적 적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음

3. AFTA의 성격

- AFTA는 역내교역에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경제통합
- AFTA는 기본적으로 가공농산품을 포함한 공산품과 일부 비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만 관세인하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국가안전, 공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품목, 민감품목(sensitive items), 서비스 등의 분야는 제외되어 있음

- 참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을 포함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호,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 등에 대해 포괄적인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음

4.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 ASEAN은 199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담에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설립하기로 합의 하고, AFTA의 설립에 필수도구인 공동실효특혜관세협정 (CEPT :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조인함
- 동 협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향후 15년간 역내국간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설립당시 관세의 경우 공산품은 2008년까지 0-5%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2000년 10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 경제 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서 관세인하 일정을 당초계획 보다 앞당겨 2002년 까지 모든 인하대상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
- 싱가포르는 2001년부터 맥주와 같은 알코올 관련 38개 품목을 제외한 ASEAN (10개국)역내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함

5. CEPT 적용요건

- 적용대상제품 : 농산물을 제외하고 자본재 및 가공농산품을 포함하는 모든 공산품
- 각 회원국들은 특정품목을 CEP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 1994년 태국에서 개최된 26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CEPT 예외 품목이었던 미가공농산물을 1996년 1월부터 관세감축 대상품목으로 전환한 바 있음
- ASEAN회원국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하여 CEPT의 적용기간을 달리하고 있음

① 대상품목(IL : Inclusion List)

2002년까지 관세율이 0-5%로 인하되고, 수량제한이 철폐되고 비관세장벽이 제거될 품목임. ASEAN의 새로운 회원국은 유예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2006년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 캄보디아는 2010년까지임. 2000년말 기준 대상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수는 53,294개로 이는 전체 품목의 82.8%에 해당함

② 임시유예품목(TEL : Temporary Exclusion List)

단기간 동안은 무역자유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대상품목으로 편입되어 관세인하조치를

취해야 하는 품목임

1996년 1월 1일부터는 해마다 일정 비율의 임시유예품목을 대상 품목으로 편입시켜 나가야 하는데, 2000년말 기준 임시유예품목수는 9,674개로 전체품목의 15.0%를 차지함

③ 수입민감품목(SL : Sensitive List)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포함하며 자유무역지대로 편입되는데 보다 긴 유예기간을 보장받음. 수입민감품목에 대한 0-5%로의 관세를 인하, 수량제한 및 그 밖의 비관세 장벽 철폐 시한은 2010년까지임. ASEAN의 새 회원국인 베트남의 경우는 2013년 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15년, 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됨

④ 영구제외품목(GEL : General Exclusion Lis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가안보,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그리고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의 보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유화품목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품목으로 총 1,036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되며 전체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임

6. 관세인하 프로그램 진행경과

- 관세인하프로그램은 일반관세인하계획(Normal Track)과 조기 관세인하계획(Fast Track) 2가지로 분류됨
- 일반관세인하계획에 의하면 20%를 초과하는 관세는 2단계에 걸쳐서 관세가 인하되며, 우선 20%를 초과하는 관세는 5년 이내인 1998년 1월 1일까지 20% 이하로 인하한 뒤에 계속해서 5년 이내인 2003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해야함
- 조기관세인하계획에 의하면, 20%를 초과하는 관세는 7년이내 또는 2001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하고, 20% 이하의 관세는 5년 이내 또는 1998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해야함
- 신속관세인하 15개 품목
 - 식물성유지, 시멘트, 화학제품, 의약품, 화학비료,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가죽제품, 펄프 및 종이류, 섬유류, 요업 및 유리제품, 보석류,銅전극, 전자제품, 목재 및 등나무 가구
- AFTA는 궁극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 비공식정상회의에서는 최초 AFTA에 가입한 6개국(부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 가입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단, 신규가입국의 경우 일부 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유예)

【 ASEAN 최초가입 6개국의 관세율 5%이하 품목수 】

(단위 : 개, %)

국가명	IL 품목수				비 중			
	0-5%	5%이상	기 타	합 계	0-5%	5%이상	기 타	합 계
부루나이	6,107	157	12	6,276	97.3	2.5	0.2	100
인도네시아	6,483	709	0	7,192	90.1	9.9	0	100
말레이시아	9,117	922	0	10,039	90.8	9.2	0	100
필리핀	5,017	558	1	5,576	90	10	0	100
싱가포르	5,859	0	0	5,859	100	0	0	100
태국	8,193	911	0	9,104	90	10	0	100
합계	40,776	3,257	13	44,046	92.58	7.39	0.03	100

자료원 : ASEAN 사무국

주 : 2001년도 기준

7. AFTA 원산지 규정

- AFTA는 CEPT에 의한 우대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 ① 수입하려는 제품이 수출국의 CEPT 대상품목에 포함되고,
 - ② CEPT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관세율이 20% 이하 수준이어야 하며, 해당제품의 ASEAN 내 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 예를 들어 베트남이 싱가포르로 A라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A품목이 양국의 CEPT 대상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품목에 싱가포르의 관세율이 10%인 반면 베트남의 CEPT 관세율이 25%일 경우에는 CEPT 혜택을 받지 못함.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됨
- 아울러 수입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40%이상인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CEPT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단순히 ASEAN 어느 한 나라를 경유해서 다른 역내국가로 수출한다 하더라도 관세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CEPT 원산지증명은 각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

8. 관세인하 이외의 조치

- ASEAN 회원국들은 관세인하 이외에도 CEPT에 의해 관세인하를 받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서 쿼터와 같은 수량제한조치나 수입허가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음

- CEPT협정 제5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CEPT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인하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한국에 미치는 영향

- ASEAN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역은 1987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ASEAN 지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주요 투자대상지역이 되었음
- AFTA의 형성에 의해 ASEAN시장이 광역화되고, ASEAN 국가들이 공업화를 계속 추진할 경우 ASEAN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AFTA에 따라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5% 이하로 인하되면서 역내교역 증대에 의한 교역전환효과(역외국가와의 교역이 역내국가와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한국의 대 ASEAN 수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결국 한국과 ASEAN 국가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는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과, 통신기기, 전기기기 및 사무용기기 등임
- 또한 컴퓨터, 섬유식품, 화학제품과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분야도 ASEAN 국가들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집중적인 투자확대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 A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ASEAN 회원국에 직접 투자하여 제조업 부문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②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ASEAN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ASEAN 지역 직접투자 한국기업 〉

- ASEAN지역에 직접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ASEAN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역내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다른 ASEAN 회원국에 대한 수출이 확대

〈 ASEAN 지역에 투자진출하지 않은 한국기업 〉

- 해외투자를 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과 같은 경공업제품의 수출업체나 섬유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AFTA에 의해서 ASEAN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ASEAN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
- 일례로 태국이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던 자국산부품 의무사용비율 (Local contents) 폐지를 발표하자,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 공급하던 업계에서는 ASEAN 이외의 국가보다는 말레이시아 등 역내국가에서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특정국가간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은 역내외 국가의 교역행태 및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교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란 어느 한 나라가 지역 경제통합에 가입하여 역내국가간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생산비가 비싼 국내 생산업자의 제품 대신에, 생산비가 낮은 역내국내 다른 생산업자로부터 수입하게 됨에 따라 교역이 새로이 창출되는 것 (국내구매 → 역내국으로부터 수입)
 - 교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란 그 동안 관세를 납부하고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이 관세가 없는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의미 (역외국으로부터 수입 → 역내국으로 수입선 전환)

10. 한국의 대응방안

- 역내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교역창출효과가 교역전환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의 성장지역으로 우리의 주요 시장이 될 전망이다 바, ASEAN 지역에 대한 우리업계의 관심 제고가 요망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SOC의 확충 및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자본재 및 시설재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참여
 - 자본재 및 시설재의 대 ASEAN 수출에 대한 관심 제고
- AFTA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함
 - 자본·기술집약산업 분야의 투자도 유망시됨
 - 저임 노동력을 겨냥한 수출지향형 투자뿐만 아니라 역내시장 지향형 투자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제2부

ASEAN 주요 국가별 진출 확대 방안

제 1 장 태국

제 2 장 말레이시아

제 3 장 인도네시아

제 4 장 베트남

제**1**장

태국

신우용

KOTRA 방콕 한국무역관 차장

I. 시장개관

1. 시장개황

- 국명 : 태국 (The Kingdom of Thailand)
- 면적 : 514,000km² (한반도의 약 2.3배)
- 기후 : 열대몬순기후(건기 11월-2월, 열대기후 3월-6월, 우기 7월-10월)
- 수도 : 방콕(Bangkok)
- 인구 : 6,200만명(2000년)
- 주요도시 : 치앙마이(139만명), 콘첸(170만명), 나콘사완(110만명)
- 인종 : 순수타이계(81.5%), 중국계(13.1%), 말레이계(2.9%), 기타(2.5%)
- 언어 :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 종교 : 소승불교(90%), 회교(6%), 기독교(2%)
- 건국일 : 1782년 4월 6일(현왕조 출범일)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국가원수 : 국왕 Rama IX(Bhumibol Adulyadej)
 - ※ 실권자는 총리
- 입법부 : 양원제(상원 200명, 하원 500명)

2. 시장특성

가. 자본재, 중간재, 원부자재 시장

- 산업용 기계류, 전자부품 등 자본재와 원부자재 등 외국투자 기업들의 가공수출을 위한 부품 및 중간재가 수입주도
- 기계, 원유, 전자부품, 화학, 철강, 광물 등 10대 수입품목 비중이 전체수입의 66% 차지

나. 대외의존적 시장

- 전통적인 농업국으로 주요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에 대한 수입비중은 35% 수준
- 제조업은 주로 외국인투자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제조업분야의 약 70%가 외국인투자로 이루어져 있음

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시장

- ASEAN 국가 중 가장 개방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교역 주도국
- 태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의 국경무역(4개국 총교역규모 약 500억불)이 활발하며 태국통화인 바트화 결제 가능(특히 라오스와 밀무역 성행)

라. 틈새시장 유망

- 해외자본에 의한 일부품목(자동차조립, 전자부품 등) 위주의 편향된 제조업 성장 모델
- 수요증가 또는 신규수요 발생시 모기업 및 현지 파트너와 협의, 태국투자청의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대응곤란
 - ☞ IT산업의 경우 초기단계로 오라클 등 미국계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으나, 이들 거대기업에 부담을 갖고 있는 현지 중소기업대상 시장 유망

마. 입찰시장 활성화

- ADB, IBRD, 세계은행 등의 차관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또는 현지 업체의 설비공급능력이 부족할 경우 국 제입찰을 통해 조달
 - 조달시장규모 연평균 약 400억불
 - 공공부문 350억불, 민간부문 50억불
- 중앙집중 단일 입찰기관이 없어 실수요기관별 자체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일괄발주가 아닌 분산발주가 대부분임
- 제조업기반 취약으로 소요기자재를 주로 해외에서 조달하며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업체들이 시장주도
 - ☞ 현지투자진출을 통한 시장확대전략 필요

II . 최근경제동향

1. 경제동향 및 전망

- 2002년 태국경제 2.5%-3.5% 성장 전망
- 소비와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4분기 제조업 생산 지수가 2001년 동기대비 4.2% 증가했으며, 3월에는 제조업 생산가동률이 최근 2년내 가장 높은 63.8%를 기록
- 태국정부는 2002년 공공소비가 작년예 비해 7.8%, 공공투자 6.1%, 민간소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수출의 경우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증가하지 않고 있어 2002년 1/4분기 수출실적이 150억불에 그침 (전년 동기대비 7% 감소)
- 최근의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감소로 2002년 수출은 전년보다 10억불정도 증가한 635억불 수준으로 전망되나 이는 2000년에 비해 44억불 줄어든 것임
- 수출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미국을 비롯해 EU, ASEAN 등 주요 수출국가의 경기 둔화임
- 세계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태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내수위주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개편 등 장기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
- 태국을 비롯하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초기 ASEAN 회원 6개국은 2002년 1월1일부터 AFTA Plan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0%-5%로 인하
- 이들 6개국의 ASEAN 내에서의 교역량은 역내 전체교역량의 96%에 이르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후발참여국은 2006년부터 5% 이하로 역내관세율 조정예정
- 한편, 태국은 1961년부터 매 5년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 2002년은 태국의 제9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기간은 2006년까지이며 제9차 경제개발계획에는 95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소요예산 약 270억불 예상)
- 태국은 매년 GDP의 5-6%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투자규모 역시 감소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액도 연평균 GDP 2.3% 수준으로 축소됨

【연도별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

(단위 : US\$백만, %)

연 도	1997	1998	1999	2000-2006
투 자 액	9,975	6,881	7,611	27,152
GDP대비율	6.6	6.2	6.1	2.3

자료원 : NESDB(국가경제사회개발원)

2. 수입시장 동향

가. 주요수입품목

(단위 : US\$백만)

연도	1999	2000	2001
전기기계	5,406	6,860	7,281
산업용기계	3,966	5,546	6,052
원유	3,856	6,105	5,756
집적회로	4,413	6,442	5,419
화학	3,940	4,912	4,815
컴퓨터	2,418	3,668	3,761
철강	2,465	2,615	2,368
금속제품	2,468	2,001	1,913
금은보석	1,218	1,714	1,907
기타광물	1,216	1,598	1,617
총수입	49,914(17.6%)	62,181(24.6%)	61,825(-0.6%)

자료원: 태국 상무부
주: ()는 전년대비 증감율

- 기계, 부품, 원료 등 자본재 및 중간재, 원부자재 비중이 전체 수입의 91% 수준으로 가공수출을 위한 수입이 주를 이룸
- 일반소비재 수입은 전체수입의 8.2%, 기타부문이 1% 수준임
- 2000년 기준 수입증가율이 큰 분야는 원료(58%), 자동차부품(54%)으로 자동차부품의 경우 태국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산업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나. 주요 수입국가

- 수입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수입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ASEAN연합(16%), 유럽연합(12%), 미국(11%) 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수입증가율의 경우 2000년기준 ASEAN연합(31%), 일본(26.6%), 미국(14.6%), 유럽연합(8%) 순임
- 2001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했으나 유럽연합은 20% 늘어났으며 이는 대독일 수입이 31% 늘어났기 때문임

【 태국의 주요 수입국가 】

(단위 : US\$백만)

국 가	1999년	2000년	2001년
일 본	12,145	15,378	13,832
미 국	6,385	7,316	7,159
중 국	2,472	3,389	3,696
말레이시아	2,489	3,359	3,067
싱 가 포 르	2,953	3,428	2,844
대 만	2,343	2,907	2,589
독 일	1,575	1,954	2,554
한 국	1,755	2,173	2,112
U A E	864	1,775	1,526
호 주	969	1,164	1,373
총 수 입	49,914	62,181	61,825

자료원 : 태국 상무부

4.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주요분야별 투자동향

(단위 : 건, US\$백만)

분 야	1999년		2000년		2001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농 산 품	81	724	66	395	50	366
광물, 세라믹	16	43	17	280	15	85
경공업, 섬유	112	383	81	426	60	373
기계, 금속제품	161	515	158	552	161	790
전기전자제품	163	1,451	211	2,221	163	884
화학, 종이	108	681	98	1,692	77	592
서 비 스	89	611	83	765	89	645
총 계	730	4,410	714	6,332	615	3,736

자료원 : BOI(투자청)

주: 1) 신고기준

2) 해외자본 10% 이상 투자 기준

3) 적용환율(\$당) : 1999년 38바트, 2000년 및 2001년 40바트

- 최근 5년간 투자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전기전자산업으로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기업의 투자임
- 2000년의 경우 태국정부의 새로운 투자유치정책 발효로 투자 신고가 크게 증가하였음

나. 주요국가별 투자동향

【 주요 국가별 투자현황(도착기준) 】

(단위 : 건, US\$백만)

국 가	1999년		2000년		2001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일 본	177	2,341	185	2,434	187	1,246
싱가포르	36	192	37	761	51	320
대 만	27	79	45	394	61	159
한 국	11	90	15	63	9	11
미 국	21	269	38	425	26	1,197
영 국	12	54	19	544	18	1,118
독 일	16	51	11	45	11	103
네덜란드	12	109	17	619	20	222
총 계	346	3,815	427	6,117	440	4,940

자료원 : BOI(투자청)

주 : 1) 해외자본 10%이상 투자 기준

2) 적용환율(\$당) : 1999년 38바트, 2000년 및 2001년 40바트

- 일본의 경우 건수기준 42.5%, 금액기준 25.2%로 최대 투자국가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설비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투자하고 있음
- 2001년 들어 전체 투자유입규모는 전년대비 19.2% 감소하였으나 미국, 영국의 투자(금액기준)는 각각 181.6%, 105.5%로 크게 늘어났음
- 한국의 투자비중은 미미한 수준임(2000년 1%, 2001년 0.2%)

【 주요 국가별 투자현황(허가기준) 】

(단위 : 건, US\$백만)

국 가	1999년		2000년		2001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일 본	188	712	282	2,684	257	2,084
싱가포르	52	184	84	498	51	225
대 만	86	208	120	441	50	171
한 국	19	26	17	35	21	36
미 국	53	1,220	72	944	40	1,003
영 국	17	103	38	145	18	121
독 일	12	49	39	160	24	343
네덜란드	18	592	21	158	10	92
총 계	517	3,580	761	5,316	575	5,240

자료원 : BOI(투자청)

주 : 1) 해외자본 10%이상 투자 기준

2) 적용환율(\$당) : 1999년 38바트, 2000년 및 2001년 40바트

- 3개년 전체 투자규모(금액기준)중 일본, 미국의 비중이 60% 수준이며 이중 일본이 39%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국가의 투자비중이 2000년 80%에서 2001년 71%로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아시아국가의 투자가 주류를 형성

Ⅲ . 우리나라의 태국진출 현황

1. 수출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수출입실적 】

(단위 : US\$백만,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수 출	1,450(-35.3)	1,734 (19.6)	2,015 (16.2)	1,848(-8.3)
수 입	808(-37.0)	1,067 (32.0)	1,631 (52.8)	1,589(-2.6)
수 지	642(-33.0)	666 (3.9)	384 (-42.3)	259(-32.5)

자료원 : KOTIS

주:()는 전년대비 증감율

- 한국 전체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16번째 수출대상국가임 (한국은 태국의 8번째 수출대상국가)
- 대태국 교역은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흑자규모는 점차 하향추세
- 1996년 27억불 수출을 정점으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다가 2000년 들어 3년만에 20억불대를 회복하였으나 2001년 경기 침체 여파로 18억불대로 다시 감소하였음
- 2002년 3월 현재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으며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US\$백만, %)

품 목	1999년	2000년	2001년	
			금 액	증감율
총 수 출	1,734	2,015	1,848	-8.3
전자부품	448	551	365	-33.6
산업용전자제품	76	178	236	32.6
철강제품	146	146	152	4.2
석유화학제품	152	216	144	-33.2
직 물	129	147	137	-6.7
가정용전자제품	90	119	100	-15.7
산업기계	31	61	89	-21.5
수송기계	118	42	85	104.1

(단위 : US\$백만, %)

품 목	1999년	2000년	2001년	
			금 액	증감율
정밀화학제품	54	67	66	-0.1
금속광물	21	18	48	171.6
비 료	43	40	47	16.2
플라스틱제품	29	36	41	16.0
기계부품, 공구, 금형	30	34	40	20.1

자료원 : KOTIS

- 전기전자, 화학제품,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등 중공업제품 비중이 80% 수준이며 특히 전기전자 부문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 구조가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있음
- 태국의 가장 큰 수출산업인 전자산업(가공수출)의 부품수요가 커 앞으로 이 분야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 투자진출현황 및 문제점

【최근연도별 투자진출 현황】

(단위 : 건, US\$백만)

분 야	1999년		2000년		2001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농업생산품	3	6.3	-	-	-	-
광물/세라믹	-	-	-	-	-	-
섬유/경공업	-	-	2	2.1	2	0.9
기계/금속제품	5	4.2	5	6.5	6	4.0
전 기 전 자	10	15.1	7	24.5	10	25.9
화학/제지	-	-	3	1.7	3	5.1
서 비 스	1	0.3	-	-	-	-
총 계	19	25.9	17	34.8	21	35.9

자료원 : BOI(태국투자청)

주: 1) 허가기준, 한국자본 10% 이상 투자기준

2) 적용환율(\$당) : 1999년 38바트, 2000년 및 2001년 40바트

- 1997년(투자규모 1억 2천만불)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전기전자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2001년 기준 72%) 제3국 수출을 위한 투자가 대부분임
- 전기전자 부문의 경우 98년 이후 투자규모가 줄어들었으나 2000년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IV. 진출확대방안

1. 수출

가. 수출확대방안

1) 공동마케팅법인 설립 등 현지마케팅 강화

[한국제품의 현주소]

- 중소기업제품 브랜드 인지도 전무
 - 품질대비 채 값을 못 받는 사례 빈번
- 경쟁력 있는 우수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은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일본제품과 비교)
- 한국제품은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성의없다는 인식 만연

[개선전략]

- 한국제품은 중저가 제품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지속적인 인지도 개선노력 필요 ⇒ 현지마케팅 전략
 - 소비재의 경우 중상급 제품으로 승부 (유통구조 파악)
 - 목표시장 설정 후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Brand Image Making 및 유통망 확보에 투자
 - ⇒ 장기적, 체계적으로 접근(일회성수출 한계)
- 협회, 조합 등 관련단체 또는 동종업계간 현지 공동마케팅 법인 설립 등 현지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품목별 유통망 확보 및 관리에 주력
- 에이전트 등 현지지원이 가능한 A/S망을 확보, 철저한 사후 서비스를 통해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구축

2) 현지투자 확대

- 2006년부터 ASEAN 10개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형성
 - 2002년부터 ASEAN 초기회원 6개국간 관세율 0%-5% 적용
 - 후발참여 4개국은 2006년까지 관세율 조정 예정
- 태국의 관세율 구조(평균관세율 21.4%)
 - 0%: 의약품, 비료 등 특정품목

- 1%: 원자재, 전자부품 등
- 5%: 기계류, 공구류, 컴퓨터 등 자본재
- 10%: 반가공품
- 20%: 완제품
- 30%: 섬유, 의류, 냉장고, 에어컨 등 산업보호품목
- 기타: 특별조치에 따른 고관세율 품목(완성차 등)

- 태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우대정책 활용 및 투자장려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사전입지 강화
 - 태국 제조업의 70% 외국인투자
 - 농산품, 자동차, 정보통신, 패션,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투자 장려

3) 입찰시장 공략

- 연간 400억불 규모의 조달시장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능
- 분야별 입찰에이전트 발굴 필수
 - 지속적인 관리 및 유대관계 강화 노력
 - 향후 정보기술(IT) 분야 입찰시장 유망
- 중앙집중 단일 입찰기관이 없어 실수요기관별 자체입찰을 실시하며 분산발주가 대부분
 -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접근
 - 유능한 에이전트활용 등 인맥확보를 통해 발주 전단계 과정부터 참여하여 주도권 확보

나. 수출유망품목

전자부품(음극선관, 집적회로 및 부분품 등), 무선송수신기기, 산업용펌프류, 밸브류, 다이아몬드공구, 공업용 테이프, 의료장비, EPS 발포기, 산화철안료, 고탄소강, 연마지, 산업용필터, PET필름, 산업용보일러, 환경설비, 곡물색채선별기, 방역기, 자동차부품, 모터싸이클체인, 송풍기, 자동염색기, 계전기, 섬유기계, 가죽, 섬유직물 및 의류원부자재, 팬시문구류, 컴퓨터주변기기

초고속디지털전송장비, 네트워크장비(라우터, 허브, NIC, 스위치), CDMA관련기술 및 장비, 중소기업용 ERP, CRM(고객관리 솔루션), SI(시스템통합), 금융전산화 관련장비

다. 수출성공사례

1) 품목 : 농기계(이삭, 곡물색채선별기)

2) 개황

- 2001년 6월 태국시장 최초 진출
- 2002년 4월 현재 12만불 수출계약
- 2002년중 150만불 추가계약 예상

3) 성공요인

- 분명한 목표시장 설정
 - 영국, 일본 등 첨단고가제품 태국시장진입 초기단계
 - 고가제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계층(중급제품)을 목표시장으로 설정
 - 영국, 일본 첨단제품보다 30% 저렴한 가격
-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 태국내 정미소 약 2만개중 규모 있는 정미소 3,000개소
 - 이중 색채선별기 보유 정미소 10%에 불과
 - 향후 5년내 90% 수준 보급예상
- 적합한 현지에이전트 선정, 현지마케팅 강화
 - 정미소협회장을 에이전트로 선정, 현지마케팅 일임
 - 에이전트를 통한 사후서비스 보장

4) 시사점

- 목표시장을 분명하게 설정, 체계적으로 접근
- 현지파트너 확보 및 잠재고객대상 현장마케팅 유효

3. 투자진출

가. 투자진출 유망분야

태국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이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외국인 투자장려분야로서 정보통신, 자동차, 패션(보석, 가죽, 의류), 농업생산품, 고부가가치서비스 등 5개 분야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서 향후 태국정부의 기반시설투자는 물론 관련인력양성, 전문 소프트웨어 단지 건설계획 등 발전가능성 무궁

- ▷ IT산업 시장규모 13억불 : 정부 및 통신부문이 35%차지
- ▷ 인터넷 사용인구 450만명
- ▷ 이동통신(GSM방식) 인구 550만명
- ▷ 하드웨어 60%, 소프트웨어 90% 수입의존
- ▷ 컴퓨터관련 서비스 50 - 60% 외국기업이 점유

나. 효율적인 투자진출방안

- 1) ASEAN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어라
- 2) BOI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100% 활용하라
예) 투자장려분야 또는 Zone 3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8년간 면제 및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3) 적합한 현지파트너(또는 합작투자선)을 확보하라
 - 제조업분야 외국인 지분 100% 인정(일부분야 제외)
 - 서비스분야 외국인 지분한도 49%

다. 투자진출 성공사례

- 1) 분야 : 정보통신(T사 : 초고속디지털전송장비)
- 2) 개황
 - 1997년 인터넷서비스회사 설립(지분 49%)
 - 2002년 태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권 획득

- 2005년까지 3천만불 규모의 장비 수출계약 체결
- 2023년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확보

3) 성공요인

- 태국 IT분야 성장가능성 예측
 - 젊은층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
 - 이동통신 사용인구 급증 및 관련 서비스시장 성장
 - 정부의 정책적 육성의지 확인
-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
 - 당장보다는 5년 이후의 시장상황에 대비한 준비
 - 한국 IT산업 인지도 및 앞선 기술력 활용한 시장선택
 -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수익성을 염두에 둔 투자
- 기술인력 및 현지인맥 확보
 -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확보
 - 현지사정 및 IT분야에 밝은 파트너 확보
 - 인맥이 없이는 진출하기 어려운 공공시장 특성을 감안한 평소의 인맥관리

제2장 | 말레이시아

정형식

KOTRA 쿠알라룸푸르 한국무역관 차장

I. 시장개관

1. 시장개황

- 공식국명 : Malaysia
- 면적 : 329,758 km²
 - 말레이반도(131,598 km²) 및 동말레이시아(사라왁/사바, 198,160 km²)의 13개주로 구성. 적도 북단에 위치, 남쪽으로는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태국, 동쪽으로는 필리핀에 인접
- 인구 : 23,26 백만명 (2000)
 - 종족 : 말레이계(58.1%), 중국계(24.3%), 인도계(6.9%), 기타(10.7%)
 - 평균수명 : 남자 70.2세, 여자 75.0세
 - 인구증가율 : 2.0% - 인구밀도 : 70.5명 / km²
 - 노동인구 : 964만(서비스 50.7%, 농업 17.9%, 제조 23.1%, 건설 8.3%)
- 언어 : 말레이어(Bahasa Malaysia)가 국어
 - 인종간 언어수단은 보통 영어로 통용 (문맹율 : 10.7%)
- 종교 : 이슬람교 (국교)
 - 회교 53%, 불교 17.3%, 기독교 2.6%, 힌두교 등 기타 27.1%
- 1인당 GNP : 3,392불 (2001년)
- 국제공항 : KLIA, Kuching, Penang, Senai, Kota Kinabalu
 - KLIA Sepang 신공항의 경우,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75km 거리
- 국제항구 : Kelang, Penang, Pasir Gudang, Kuantan, Bintulu Port
- 주요도시 : Kuala Lumpur(수도), Penang, Johor Bahru, Melacca 등
- 도량형 : 미터법 (면적표시 경우 S/F를 사용)
- 전기규격 : 50 HZ, 220-240 V, 3선 스위치
- 시차 : 한국과 1시간 차이 (한국자정 = 말레이시아 23:00)
- 화폐단위 : Malaysian Ringgit (RM)
 - 지폐 : 1, 2, 5, 10, 20, 50, 100 (RM)
 - 주화 : 1, 5, 10, 50 (Sen), 1 (RM) * 1 RM = 100 Sen
 - 환율 : US\$1.00 = RM3.8
- 근무시간
 - 관공서 : 08:15 - 16:15 (월-금), 08:00 - 12:30 (토)
 - * KEDAH, KELANTAN, TERENGGANU 지역은 금요일이 공휴일이며, 목요일이 HALF-DAY임

- 업 계 : 08:30 - 17:30 (월-금), 08:30 - 12:30 (토)
- 은 행 : 09:30 - 15:30 (월-금), 09:30 - 11:30 (토)
- 백화점 : 11:00 - 21:00

2. 시장특성

가. 세계적 경쟁업체들의 경연장

- 인구수(2,326만)에 비해 교역규모(US\$ 1,600억)가 상대적으로 크고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함에 따라 각 분야의 세계적 우수업체가 진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추진으로 4,000여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 전기전자 등 공산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품질 및 가격 경쟁이 특히 치열

나. 가격이 구매여부를 좌우하는 시장

- 세계 각국에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제일의 구매 결정요인은 가격임
- 특히, 1997년 하반기 이후 현지화 가치의 급락에 따른 수입단가의 상승효과는 제품의 현지화가격 급상승을 동반, 내수시장 위축과 함께 판매활로 확보를 위해 가격을 중시하는 추세가 심화됨
- 이에 따라, 기존 미국 및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하던 바이어들이 미화대비 통화가치 하락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아시아국 제품으로 수입선 전환 사례 증가

다. 동남아의 중심상권으로 발돋움

- 과거, 싱가포르를 통한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무역패턴에서 탈피하여 대부분 직교역 형태로 무역패턴 전환
- 더 나아가 오히려 인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중계무역도 추진
- 2003년 이후 ASEAN시장이 단일화될 경우, 이러한 추세 더욱 강화 예상

라.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큰 시장

- 현지진출 외국기업 및 현지기업이 대부분 완제품 조립산업 위주의 제조활동을 하고 있어 기계설비, 중간재 및 부품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 가공무역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국산품 장려 및 완제품 수입억제를 추진하면서, 완제품보다는 부품, 반제품 형태의 수출추진이 유리

마. 중국계의 일반상권 장악

- 전체 인구의 약 24%인 화교로 지칭되는 중국계가 상권 장악
- 이들은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는 물론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경제권과도 연계

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내구소비재 구매증가 및 고급화

- 중고가품 혹은 유명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층 급증
 - * 중산층이 60% 이상 달한 것으로 평가 (ADB)
- 특히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보급확대 및 소비패턴이 급속한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II . 최근 경제동향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지표

구 분(단위)	2000	2001	2002(예상)
인구 (백만명)	23.3	23.8	24.3
실업율 (%)	3.1	3.7	3.6
실질 GDP 성장율 (%)	8.3	0.4	3.5
GNP (RM십억)			
- '87 불변가격	190.3	192.4	198.3
증가율(%)	5.9	1.1	3.1
- 경상가격	312.2	306.7	323.1
증가율(%)	11.7	-1.7	5.3
- 1인당국민소득 (US\$)	3,529	3,392	3,493
경상수지 (RM십억)	32.0	27.4	25.5
- 상품수지	79.2	69.9	73.0
- 서비스수지 등	-39.8	-34.3	-39.1
- 이전수지	-7.5	-8.1	-8.4
재정수지 (RM십억)	-19.7	-18.4	-18.6
- 세 입	61.9	79.6	73.4
- 세 출	81.6	97.9	92.0
외 채 (US\$ 십억)	41.8	42.4	38.3
소비자물가상승율 (%)	1.6	1.4	1.8
이자율(%, 3개월 은행간)	3.25	3.27	3.29
환 율 (RM/US\$)	3.8	3.8	3.8
외환보유고 (US\$십억)	29.9	30.8	30.5

자료원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나. 2001년 경제실적

- 141.4억불 무역흑자 달성
 - 수출(RM3,344억), 수입(RM2,807억)실적이 전년대비 10.4%, 9.9% 동반 감소하면서 무역흑자도 RM537억으로 전년대비 15.0% 감소 기록
 - * 2000년 말레이시아 무역수지는 약 160.3억불 흑자
 - 수출 RM3,733억(16.1% 증가), 수입 RM3,124억(25.7% 증가)

- 실질 GDP 성장률 0.4%로 둔화
 - 1997년 경제위기 여파로 1998년 실질 GDP 성장률이 -7.5%로 하락, 1999년 및 2000년은 경기회복 진전으로 각각 5.4%, 8.3% 성장률 기록. 2001년의 경우 수출부진 심화로 경제 성장률은 0.4%로 둔화
 - 2001년 산업별 성장률은 제조업 -5.6%, 건설업 1.5%, 서비스업 2.0%, 광업 0.8%, 농림수산업 1.9%로서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 위축이 경기 침체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외환보유고는 308억불
 - 무역흑자 지속, FDI 유입 증가로 2001년 12월말 단기외채의 6배 수준인 308억불의 외환을 보유하여 5.1개월의 수입결제 가능

- 총 외채는 426.5억불
 - GDP 대비 외채 비중이 46.9%로 1998년 60%와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총 외채 가운데 중장기 외채 비중이 88.8%로 채무 건전성 양호. 중장기 외채 가운데 공공부채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11.8% 증가한 반면 민간부채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10.4% 감소

다. 2002년 경제전망

- 실질 GDP 3.5% 증가 예상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 조짐, 정부 재정지출 확대, 내수업종 호조로 성장률은 3.5% 정도로 예상.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약 5% 성장 전망

- 현 고정환율제는 최소한 하반기까지 지속 전망
 - 1998년 9월 2일 외환관리 대책으로 도입된 달러당 RM 3.8의 고정환율제도는 엔저 및 동남아 화폐 평가절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환 보유고 안정 등 양호한 경제 실적을 기반으로 금년에도 유지 전망

- 무역수지 흑자추세 지속
 - 1997년 11월 이후 50개월 연속 기록중인 무역흑자 기조는 올해도 지속이 예상되나 수출 부진으로 흑자폭은 90억불 정도로 감소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안정
 - 소비자물가지수는 수요부진, 재고 증가 등 물가상승 압박 요인 부재로 금년도 상승률도 전년도 수준인 2.0%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약 5%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소득세 1% 인하, 공무원 급여 인상, 저이자율 지속 등 정부의 수요 확대 노력 및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5% 증가 예상
- 실업률은 3.6% 전망
 -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기회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은 2001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

2. 수입시장 동향

가. 무역수지

- 2001년 무역수지는 RM537억의 흑자 기록(전년대비 15% 감소)
 - 수출입 동반 감소 : 수출 10.1% 감소, 수입 9.7% 감소

【 말레이시아의 수출입동향 】

(단위 : RM백만, %)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1996	197,026.1	6.5	197,279.8	1.5	-253.7
1997	220,890.4	12.1	220,935.5	12.0	-45.0
1998	286,750.1	29.8	228,307.8	3.3	58,442.3
1999	321,181.0	11.2	248,870.0	9.0	72,311.0
2000	373,307.3	16.1	312,426.7	25.7	60,880.6
2001	334,420.3	-10.4	280,691.2	-9.9	53,729.1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계청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품 : 전기전자(56.6%), 팜오일 제품(4.5%), 원유(3.3%), LNG(3.4%), 의류(2.4%)

- 수입품 : 기계·수송장비(60.5%), 화학제품(7.4%), 원유·윤활유(5.2%), 식품(4.4%)

나. 주요 수출국

○ 미국, 싱가포르, 일본이 3대 시장으로 총 수출의 약 50.5%를 차지하며 기타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은 네덜란드(4.6%), 홍콩(4.6%), 중국(4.3%) 등

○ 2000년 8위 수출시장인 우리나라는 2001년 총수출의 3.3%를 차지

【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 】

(단위 : RM 백만, %)

순 위	국 명	2000		2001	
		금 액	점 유 율	금 액	점 유 율
1	미 국	76,584.0	20.5	67,672.3	20.2
2	싱가포르	68,592.2	18.4	56,669.0	17.0
3	일 본	48,741.7	13.1	44,502.7	13.3
4	네덜란드	15,611.6	4.2	15,429.2	4.6
5	홍 콩	16,872.3	4.5	15,298.6	4.6
6	중 국	11,506.2	3.1	14,519.8	4.3
7	태 국	13,492.1	3.6	12,767.8	3.8
8	대 만	14,225.8	3.8	12,117.1	3.6
9	한 국	12,383.0	3.3	11,157.3	3.3
10	영 국	11,572.4	3.1	8,779.1	2.6
총 수출액		373,307.3	-	334,420.3	-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계청

다. 주요 수입국

- 일본이 수입시장 점유율 19.2%로 최대 수입국이며, 미국(16.0%), 싱가포르(12.6%), 대만(5.7%) 등이 2-4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4.5%에서 2001년 4.0%로 다소 하락

(단위 : RM 백만, %)

순 위	국 명	2000		2001	
		금 액	점 유 율	금 액	점 유 율
1	일 본	65,860.5	21.1	54,001.5	19.2
2	미 국	51,862.5	16.6	44,840.8	16.0
3	싱가포르	44,703.6	14.3	35,313.4	12.6
4	대 만	17,521.5	5.6	15,931.8	5.7
5	중 국	12,310.3	3.9	14,456.8	5.2
6	한 국	13,920.7	4.5	11,239.8	4.0
7	태 국	12,067.4	3.9	11,121.0	4.0
7	독 일	9,276.0	3.0	10,415.3	3.7
9	인도네시아	8,621.6	2.8	8,517.2	3.0
10	홍 콩	8,602.2	2.8	7,191.0	2.6
총 수입액		312,426.7	-	280,691.2	-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계청

3.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가. 최근 투자 동향(투자승인 기준)

- 건수 : 1999년 725건, 2000년 805건, 2001년 813건
- 금액 : 1999년 RM170억, 2000년 RM335억, 2001년 RM247억
- 내외국인 투자비율
 - 2000년은 내국인 투자액 RM137억(40.9%), 외국인 투자액 RM198억(59.1%)으로 외국인 투자액이 전년대비 61% 급증
 - 2001년의 경우 총 투자금액 RM247억 가운데 외국인 투자액이 RM183억(74%), 내국인 투자액이 RM64억(26%) 기록
- 외국인 최대 투자분야는 전기 및 전자산업
 - 2001년 외국인 투자승인 건수 590건 가운데 전기전자산업은 198건으로 33.6% 차지(2000년도는 총 184건으로 전체 승인건수의 32.2% 점유)
 - 투자액 기준시 전기전자산업 투자승인 금액 RM94억은 전체 외국인 투자승인 금액 RM183억의 51% 점유

나. 주요 국별 투자유치 현황

- 1995-2001 누계기준으로 대말레이시아 주요 투자국은 미국 RM294.8억, 일본 RM179.1억, 싱가포르 RM128.9억, 대만 RM68.6억 등이며 한국은 RM56.8억으로 7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00년 국가별 투자순위는 미국 RM75억, 일본 RM29억, 네덜란드 RM22억, 싱가포르 RM18억, 독일 RM17억 등이며 한국 업체는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부문 등에 총 14건 RM7억을 투자
- 2001년도 투자순위는 미국(RM33억), 일본(RM32.8억), 중국(RM29억), 싱가포르(RM21.8억), 네덜란드(RM21.7억), 한국(RM17억), 대만(RM11억), 독일(RM5억) 순으로 주요 투자국 지위 유지

【 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가 】

(단위 : 건, RM백만)

순 위	국 명	건 수	금 액(RM백만)
1	미 국	296	29,481.3
2	일 본	946	17,907.0
3	싱가포르	1,019	12,885.1
4	대 만	598	6,859.6
5	중 국	45	6,292.6
6	네덜란드	64	5,909.5
7	한 국	112	5,679.8
8	독 일	132	4,586.4
9	스 위 스	53	3,105.1
10	영 국	147	2,298.2

자료원 : MIDA

주 : 1995-2001 투자승인 기준

다. 주요 산업별 외국인 투자동향

【 주요 산업별 외국인 투자승인 현황 】

(단위 : 건, RM백만)

품 목	2000		2001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전기 및 전자제품	184	10,209.7	198	9,420.1
석유화학제품	7	1,763.8	5	115.5
비금속 광물	21	1,527.6	18	1,595.4
천연가스	1	1,444.9	-	-
섬유, 직물	23	731.9	26	181.1
고무제품	18	668.3	25	224.6
화학 및 화학제품	44	586.6	46	619.5
식품제조	56	539.5	34	510.3
기초금속	21	428.0	16	415.5
기계제조	42	420.0	61	346.0
플라스틱	25	289.9	28	193.2
운송장비	23	273.1	31	491.2
종이, 인쇄, 출판	18	211.9	16	3,084.2
연구, 측정장비	8	166.5	14	526.4
조립금속	31	163.0	34	345.8
목재 및 가공제품	13	155.7	18	122.2
음료, 담배	7	107.7	1	12.0
가 구	18	106.8	10	60.0
가죽 및 가공제품	2	2.8	2	0.2
기 타	10	50.7	7	80.2
총 계	572	19,848.5	590	18,343.4

자료원 : MIDA

Ⅲ .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진출현황

1. 수출현황 및 문제점

가. 개요

- 2001년 양국 교역량은 67.5억불로 우리나라가 15억불 적자
- 2000년 총 교역규모는 83.9억로 우리나라가 13.6억불 적자 기록

【 대 말레이시아 교역동향 】

(단위 : US\$백만,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	금액	4,356	3,602	3,647	3,515	2,628.0
	비중	3.2	2.7	2.5	2.0	1.75
	증가율	0.5	-17.3	1.3	-3.6	-25.2
수입	금액	3,283	2,211	3,155	4,878	4,126.0
	비중	2.3	2.4	2.6	3.0	2.92
	증가율	9.2	-32.7	42.7	54.6	-15.4
교역	금액	7,639	5,813	6,803	8,393	6,754.0
규모	비중	2.7	2.6	2.6	2.5	2.32
수지		1,073	1,391	492	-1,363	-1,498.0

자료원 : KOTIS

주: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 수출 현황

-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2,628백만불로 전년대비 25.2% 감소
- 주종 수출품 가운데 무선전화기(95.8%), PCB(18.2%), 승용차 (9.5%), 유리제품(47.8%), 종이(50.0%)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1위 수출품인 반도체(-52.3%), 합성수지(-30.5%), 냉연강판 (-29.8%), 기타 전자관(-22.4%) 등 산업용 중간재 수출이 급감

다.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

-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상위 7대 품목은 말레이시아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의 중간재가 대부분으로 경기 위축에 따라 수입 수요도 침체를 보이고 있음

【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

(단위 : US\$백만, %)

순위	품 목 명	2000		2001		
		금액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 수출액	3,514.7	-	2,628.0	-25.2	-
1	반도체	1,364.0	38.8	652.4	-52.2	24.8
2	컴퓨터	180.2	5.1	197.1	9.3	7.5
3	전자관 및 부분품	277.8	7.9	195.8	-29.5	7.5
4	무선통신기기	95.9	2.7	185.7	93.6	7.1
5	석유화학제품	226.2	6.4	168.2	-25.6	6.4
6	철강의판	172.4	4.9	125.6	-27.2	4.8
7	기구부품	87.4	2.5	101.9	16.6	3.9
	소 계	2403.9	68.3	1626.7	-	62

자료원 : KOTIS

주 : 1) 비중은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MITI 3단위 기준으로 선정

라. 주요 수출품목별 문제점

① 반도체

- 1위 수출품목으로 1999년 4월 이후 제품가격 하락 및 IT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수출이 대폭 감소되어 왔음

* 세계 유명 반도체 회사들이 말레이시아를 반도체 조립 및 검사 공정기지로서 활용하고 있어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 품목으로 부상

② 컴퓨터

-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조립생산 확대, 대만산 등 경쟁 제품의 시장 선점 등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나

한국 제품의 인지도 제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컴퓨터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등 PC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국산 컴퓨터 수출 감소세가 다소 둔화를 보이고 있음

③ 전자관 및 부품

- TV, 모니터 등 전자제품 수출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삼성, Chunghwa 등 현지 다국적 기업의 생산 증가로 수입수요 감소

④ 무선통신기기

- 휴대폰 접속료 폐지, 이동통신 업체의 부가서비스 제공 확대에 따른 가입자 확대로 휴대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삼성 휴대폰의 경우 대대적인 판촉행사 전개, 영업망 대폭 확충, 신규 가입자 적극 유치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 우수한 디자인, 적정 수준의 가격 설정 등 효과적인 마케팅 전개로 올해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달성 휴대폰 판매시장에서 2위 업체로 도약

⑤ 석유화학제품

- 말레이시아 경기위축에 따라 에틸렌글리콜, 테레프탈산 등 합섬원료, 프로필렌, 벤젠 등 기초유분, 파라크실렌 등 중간원료, ABS수지, LDPE, HDPE, 에폭시수지 등 합성수지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은 제2차 산업 마스터플랜(IMP 2 : 1996-2005)에 따라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RM17.6억(총15건)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 전기전자산업에 이어 제2위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음
 - 현재 말레이시아의 석유화학산업 수준은 현지조달 및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몇몇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음. 한국산의 경우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편이나 세계적인 공급과잉 및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⑥ 철강의 판

- 세계적인 철강산업 보호주의 여파로 말레이시아도 3월 15일부로 모든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50% 인상하고 수입허가제(AP)를 도입함에 따라 철강 수출에 상당한 차질 예상

⑦ 기구부품

- 말레이시아 1위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 생산용 중간재인 스위치, 커넥터, PCB 등 부품류의 경우 국내업체의 국제인증 획득 등 품질 향상, 가격 경쟁력 우수 및 현지 다국적기업간의 원가절감 경쟁 심화로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투자진출 현황 및 문제점

- 1988년부터 우리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 본격화
 - 1981년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1988년 이후 투자액이 99%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이 13.94억불을 투자하여 총 투자의 약 53%를 차지

【 연도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현황 】

(단위 : 건, US\$백만, 명)

연 도	건 수	투 자 액	고용창출
'81 - '87	36	28	4,402
1988	11	16	3,664
1989	29	70	3,997
1990	25	241	6,590
1991	43	661	7,281
1992	22	39	2,576
1993	13	43	1,021
1994	18	156	4,431
1995	20	239	4,332
1996	18	256	1,435
1997	18	242	2,687
1998	15	19.4	1,873
1999	6	9.3	326
2000	14	190.2	5,871
2001	21	446.4	2,404
계	309	2,656.3	52,890

자료원 : MIDA

주 : 승인기준

○ 말레이시아 주요 투자국의 투자규모도 1988년부터 급증

- 1988년 이후 1997년 경제위기 시기까지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의 투자확대와 더불어 연평균 8.0%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 지속

○ 외환위기로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 대폭 감소

-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998년, 1999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는 대폭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2001년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실적은 21건, 446.4백만불로 대폭 증가

>> 주력 투자업종은 비금속, 전자, 기초금속, 석유정제 등

【 업종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현황 】

(단위 : 건, US\$백만, 명)

연 도	건 수	투 자 액	고용창출
비금속제품	25	2,632.0	4,589
전자 및 전기	61	1,799.6	13,738
기초금속	18	848.2	2,257
석유정제	1	699.5	520
조립금속	20	254.7	2,189
목재 및 가공	31	166.9	6,313
용지, 인쇄 및 출판	14	210.9	1,538
화학제품	18	111.6	1,082
수송기계	20	97.4	4,141
고무제품	26	85.4	5,163
플라스틱제품	20	63.2	1,692
식 품	7	31.2	519
섬 유 류	15	604.1	5,706
가 구	8	23.1	1,489
기계제조	10	23.3	627
음료 및 담배	1	2.3	90
가죽 및 가죽제품	1	0.4	80
기타 잡제품	13	39.8	1,157
총 계	309	7,693.6	52,890

자료원 : MIDA

주 : 1981-2001년 기준

IV. 진출확대방안

1. 수출

가. 수출확대방안

(1) 한국제품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최대 활용

- 말레이시아 수입시장은 오랜 동안 미국, 유럽, 일본산 중심의 고가, 고품질 제품과 대만, 홍콩, 중국 중심의 저가 제품으로 양분되어 왔음
- 1990년대 들어, 한국제품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제품이 많이 소개되면서,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을 기존 양대 제품군의 중간수준으로 인정
- 이러한 포지셔닝은 가격을 최우선시하면서 품질도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바이어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인정
- 기존의 단순 상품수출에 더하여 A/S, 신상품 개발지원을 통해 현지시장에서 한국제품 위상 제고 노력 필요

(2) 수입선 전환 움직임 적극 활용

- 말레이시아의 수입시장은 현재 달러화 대비 현지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단가의 급등으로 가격이 마케팅의 key factor로 부각
-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수입하던 상당수의 바이어들이 통화가치 동반 하락으로 저가제품 공급이 가능한 아시아 국가로 수입선 전환 움직임을 적극 모색중임
- 이러한 현지바이어들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을 적극 활용, 선진국 제품 대비 가격, 개도국산 대비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기계류 및 각종 중소 플랜트 등 한국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필요
- 한국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활용한 틈새시장 적극 공략
-전기전자제품, 각종 부품류, 의료용기, 일부 섬유제품 등 틈새품목으로 공급확대가 유망시되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됨

(3) 기계, 설비류 등 자본재 수출활동 강화

-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산업기자재 수요는 물론 노동력부족 타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후 설비 교체 및 공장 자동화 추세로 자본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현지진출 외국기업 및 현지기업의 경우 대부분 완제품 조립산업 위주의 제조활동에 치우쳐, 기계설비, 중간재 및 부품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 매년 개최되는 주재국 기계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자본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필요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조성 필요

- 말레이시아는 ASEAN의 생산 거점으로써 다국적 기업진출(BASF 등)이 활발해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일시장에 대비, 대기업의 투자진출과 연계한 중소기업 품목의 진출이 요청됨
- 예컨대 삼성의 대규모 복합단지(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전관) 가동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 연관업체의 투자진출 사례가 있음

(5) 한국제품에 대한 홍보활동 및 이미지 제고 노력 강화

- 품목별 주요 박람회참가를 통한 한국산 홍보
 - 각종 기계류 : 쿠알라룸푸르 기계박람회
 - 전기제품 : ELENEX
 - 전자 부품류 : 페낭 전자부품박람회
 - 통신, 멀티미디어제품 : 쿠알라룸푸르 통신박람회
- 중국, 대만, 홍콩 등 화교계 국가는 중국계신문, CNBC 등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홍보가 잘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홍보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임. 정부차원의 국가홍보 및 이미지 제고 노력 필요

나. 수출유망품목

- 절삭공구 및 전공공구
 - 다이아몬드공구, 그라인딩 머신, 전동공구, 수공구
- 기계 및 부품
 - 펌프, 밸브, 컴프레서, Blower 등 산업용 기계류
 -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등
-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류
 - 제빵기, 자외선소독기, 주서기 등 소형가전제품

- PCB, 스위치, 음향기기 부품, 냉동기기 부품

- 의료기기, 장비 및 약품류
- 기타 문구류, 정수기 등

다. 수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성공 사례]

□ 사례 1 (품목 : 배)

- W 작목반은 배 재배경력 30 - 40년 보유한 영농인이 결성한 영농법인으로 1999년 설립, 연산 약 2500톤 정도의 배를 생산하고 있음
- 종래 수출실적 전무하며 내수시장 공급에 치중하여 출하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이 많던 차에 KOTRA가 시행하는 지사화사업을 알고 2001년 9월 가입 신청함
- 경기무역관의 지사화 가입신청을 받고 우리무역관은 ICETAN 등 주요 대형백화점을 접촉 확인한 바, 지금까지 우리배가 유통된 적이 없으나 관심이 많음을 파악함
- W 작목반의 지사화 가입과 함께 지사화 담당자가 직접 과수원을 방문, 과수원현황 및 저장상태, 포장 등을 파악하고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 귀임 후 주요 대형백화점 등 구매 담당자와 협의, 첫 오더는 소량(100 박스)으로 하여 시장 테스트를 해보고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경우 대량 오더키로 합의함
- 연말연시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소비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면서 2-3일만에 전량 소진하였으며 충분히 우리 배의 시장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확신을 얻은 백화점측은 2002년 2월 추가로 850상자(17,000 불 상당)를 오더하여 말레이시아내 30개 매장에 분산, 성공적으로 판매 완료함
- W 작목반은 처음으로 지사화사업에 참가하여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크게 만족하면서 향후 KOTRA 지사화 사업 참가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사례 2 (품목 : 자동차용 에어컨프레사)

- Y산업은 재생 자동차에어컴프레사 전문생산업체로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의 시장성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 무역관에서 주선한 유망 바이어 약 10 여개사와 상담을 실시하였음
- 특히, Y산업은 종래 내수시장에만 공급해온 터라 수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무역관 담당자가 바이어사무

실 방문시 동행하여 상담을 지원함

- 그 후에도 무역관은 Y사와 바이어사이에서 성약 지원활동과 지속적인 사후 Follow-up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약 200,000불 상당의 수출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약이 예상되고 있음

□ 사례 3 (품목 : 정수기꼭지)

- S 개발은 정수기꼭지 전문생산업체로 지사화사업 최초 시행연도인 2000년도에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지사화사업 대상무역관으로 선정한 뒤 지난 7월 재경신하여 지금까지 2년째 KOTRA 지사화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열대의 나라로 정수기부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조립하는 업체가 다수 있음. 무역관은 이들 조립업체를 수시 방문 유대를 맺고 경쟁국 부품류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바이어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당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음
- 동사는 지사화사업 가입 후 말레이시아에 약 300,000불 상당을 수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오더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사례 4 (품목 : 밥솥)

- D사는 '밥솥' 전문제조업체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출구매상담회” 시 당관이 파견한 바이어와 상담을 실시함
- 그 후 바이어는 국방부 입찰시 D사의 제품을 참가시켜 채택됨으로써 2002년 1월 21일 16,000불에 상당하는 첫 선적을 하게됨
-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D사 제품의 품질에 만족해 했으며, 무역관의 지속적인 사후 Follow-up으로 5월중 추가 오더가 예상되고 있음

[실패 사례]

□ 사례 1 (품목 : 냉연특수철판 및 강대)

- 냉연강판 전문생산업체인 J사는 무역관의 시장동향조사 및 바이어 조사를 통해 유망바이어를 발굴했으며, 동 바이어와 약 4개월에 걸쳐 밀고 당기는 가격조정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톤당 460불에 상호 합의를 보고 다음날 L/C를 오픈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바로 다음날 국내 대기업인 S사가 바이어를 접촉, 톤당 60불이 낮은 400불을 제시, 아국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마지막단계에서 오더가 취소됨

- S사의 출혈수출에 따른 아국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양사 모두 타격을 받은 사례임

2. 투자진출

가. 투자진출 유망분야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전형적인 국가

- 다양한 투자혜택

[세제혜택]

- 개척자 자격 (Pioneer Status): 5년간 면세 (1회 연장 가능)
- 투자세 공제: 과세표준금액의 70% 공제

[법 규]

- 외국인지분제한 및 과실송금 제한 없음

[간접 인프라]

- 사회간접시설 우수, 국민 대부분이 영어 구사, 비교적 인건비 저렴, 적극적인 행정지원

- 투자진출 유망분야

- IT, 통신, 멀티미디어 등 하이테크 산업
- 자동차 부품
- 전자제품 및 부품
- 화학제품 및 석유화학
- 고무제품 제조 등

나. 효율적인 투자진출방안

[투자절차]

(1) 회사설립

① 회사명 사용등록단계

- 의의 : 말레이시아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이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고, 사용 가능할 경우 해당 회사명을 예약하는 절차
- 접촉기관 : Registrar of Companies(ROC)
 - 주소 : Tingkat 11-17,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300 Kuala Lumpur
 - 전화 : (603) 443-3366
 - 팩스 : (603) 443-7505/449-2313
 - 담당부서 : Name Search Department
- 소요기간 : 신청시부터 1개월내 회사명 사용 승인여부 회신

② 회사등록 (Locally Incorporated Company)

- 의의 : 상기 ①에서 승인된 회사명으로 회사를 설립, 영업하기 위해 회사명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내 회사관련 세부자료를 관계 기관에 등록
- 접촉기관 : Registrar of Companies(ROC)
 - 담당부서 : Incorporation Unit
- 제출서류
 - 회사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 회사명, 설립목적, 수권 자본금, 자본금의 정액주식으로의 분할 내용 등을 명기
 - 회사 부속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회사 내부경영과 사업운영 관련 제반규정 등 명기
 - 법규준수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
 - 임원 임명대상자의 서약서 또는 회사설립전 발기인의 서약서
- 수수료 : 수권자본금에 따라 RM 1,000-70,000 차등
- 소요기간 : 회사명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내 상기서류를 제출해야 상기 회사명으로 회사운영 가능

(2) 제조업허가 (Manufacturing License)

- 의미 : 말레이시아내에 제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절차로 제조업 허가여부는 물론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내용, 외국인기술자 체류 허가 인원수 등이 동시에 결정됨
 - 단, 주주기금(Shareholder's Fund)이 RM 2.5백만 미만이고, 상시 고용인이 75명 이하인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허가 면제
- 접촉기관 :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MIDA)
 - 주소 : Wisma Damansara, Damansara Heights, Jalan Semantan, 50490 Kuala Lumpur
 - 전화 : (603) 255-3633
 - 팩스 : (603) 252-1253/253-8507
 - 담당부서 : Industrial Promotion Division
- 제출서류
 - 제조업 신규허가 신청 : ICA 1
 - 허가면제 제조업체의 허가 신청 : ICA 2
 - 기존 제조업 허가업체의 투자확대 신청 : ICA 3
 - 농업분야 신규허가 신청 : ICA 4
 - 기존 농업분야 허가업체의 투자확대 신청 : ICA 5
 - 첨단기술분야 신규허가 신청 : ICA 8
 - 기존 첨단분야 허가업체의 투자확대 신청 : ICA 9
 - 제조설비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신청서 : BCP 2/80
 - 원부자재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신청서 (내수용) : TAC 2
 - 원부자재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신청서 (수출용) : TAC 4
 - 외국인근로자 체류허가(Work Permit) 신청서 : Expatriate Post
- 수수료 : RM 50
- 소요기간 : 허가신청시로부터 2개월내 허가여부 회신

다. 투자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성공사례 - 삼성전자 복합단지]

- 복합단지 구성: SDI(M)(삼성SDI), SCM(삼성코닝), SDMA(삼성전자), SEMA(삼성전자)로 일관생산체계 구성
- 투자규모: 총투자액 10억불, 총매출 12.1억불(2001년), 현지채용 인원 6,000명, 본사파견 58명
- 연혁
 - 1989년 9월 : 전자렌지공장 설립 (전자)
 - 1990년 10월 : 브라운관 공장 설립 (SDI)
 - 1992년 7월 : 브라운관용 유리공장 설립 (코닝)
 - 1995년 3월 : 모니터공장 설립 (전자)
 - 1997년 2월 : 복합단지 준공식 (마하티르 총리 참석)
 - 2001년 6월 : 전자렌지 신공장 준공 (SEMA)
- 주요수상실적
 - 1997년 5월 : 주정부 우수기업상 (품질) 수상
 - 1998년 8월 : 말레이시아 최우수기업상 수상
 - 2000년 2월 : 국무총리 Hibiscus Award (환경) 수상
 - 2001년 2월 : 말레이시아 종합생산성 대상 수상
 - 2001년 11월 : 국무총리 품질대상 수상
- 성공요인 및 진출효과
 - 시너지 효과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감 구축 : 현지화, 노사화합, 현지사회공헌
 - 현지경제 기여 : 말레이시아 GDP의 2.3% 점유
 - 투자비 전액 회수 : 가동초기부터 이익 실현

제 **3** 장

인도네시아

김 수 익

KOTRA 자카르타 한국무역관장

I . 시장개관

1. 시장개황

가. 일반사항

-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Megawati Sukarnoputri)
- 입법부
 - 국민협의회 (MPR) : 헌법제정, 정·부통령 임면, 국가정책 방향결정 (임기 5년, 700명)
 - 국 회 (DPR) : 입법권, 예산결정 및 집행 감독, 행정부 견제 (임기 5년, 500명)
- 수도 : 자카르타 (인구 950만명, 면적 662 km²)
- 면적 : 2,027,087 km² (한반도의 9배)
 - 북위 6.8° ~ 남위 11.15° / 동경 94.45° ~ 141.65°
 -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등 5개의 큰섬과 17,500여개의 작은섬으로 구성
- 인구 : 2억 12백만명 (세계 4위 - 인구증가율 1.48%)
- 종족 : 자바족 (45%), 순다족, 아체족, 바딕족등 300여 종족
- 종교 : 회교(87%), 기독교(7%), 카톨릭(3%), 힌두교(2%)등
- 언어 :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 공용어)
- 주요도시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스마랑 (이상 자바), 메단 (수마트라), 덴파사 (발리), 우중빤당 (수마트라), 와메다 (파푸아)
- 기후 : 열대몬순, 고온 무풍다습
 - 연평균 기온 : 25-28℃ (자카르타 32-33℃), 습도 73-87%,
 - 우기 (12월-3월)와 건기 (6월-9월) 로 나뉨
- 표준시 : GMT + 7 (한국과의 시차 : -2 시간)
 -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영토로 3개의 표준시 존재

나. 경제현황

【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단위)	1997	1998	1999	2000	2001
GDP 성장률 (%)	4.7	-13.68	0.2	4.8	3.21
GDP per Capita (US\$)	1,088	484	490	760	805
총 수출 (US\$십억)	53.4	48.8	48.7	62.1	58.6
- 증감율 (%)	7.2	-8.6	-0.6	27.3	-5.5
비 석유/가스수출 (US\$십억)	41.8	40.9	38.7	46.9	43.4
- 증감율 (%)	6.6	-2.1	-5.3	21.2	-9.1
총 수입 (US\$십억)	41.7	27.3	23.9	33.5	30.9
- 증감율 (%)	-8.9	-34.5	-12.4	14.2	-8.1
비석유/가스 수입 (US\$십억)	37.7	24.6	20.3	27.5	25.3
- 증감율 (%)	-9.5	-34.7	-17.4	12.9	2.5
경상수지 (US\$십억)	-5.8	4.5	5.4	5.9	3.0
외환보유고 (US\$십억)	21.4	23.8	27.0	29.3	27.7
총 외채 (US\$십억)	137.4	138.0	148.15	141.7	137.6
인플레이션 (%)	11.60	77.63	2.01	9.40	12.95
은행 예치 이자율(3개월)	-	-	-	-	-
- 국영은행 (%)	17.0	37.0	16.0	12.0	15.6
- 일반은행 (%)	28.7	40.0	15.0	12.5	15.3
은행 대출 이자율 (3개월)	-	-	-	-	-
- 국영은행 (%)	21.0	28.5	23.0	17.0	17.3
- 일반은행 (%)	31.9	39.7	25.0	17.7	19.4
환 율 (US\$ 1)	5,400	7,500	7,087	9,280	10,087

자료원 : DATA CONSULT, WTA

2. 시장특성

가. 화교자본의 지배가 절대적인 시장

-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계 주도
- 수하르토 집권 이후 화교 공직진출 제한, 대부분 경제계에서 활동
 - 2,067개의 대기업을 소유한 10대 그룹중 9개가 화교자본
 - 상장기업 중 화교기업 비중: 73%
 - 1998년 5월 폭동시 800억불의 화교자본 해외 유출추정

나. 가격 시장 현상 심화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바이어의 제품구매 결정요인은 가격
-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매력 감소
 - 품질보증기간(1년) 만큼 사용 가능한 저가제품 구매 선호

다. 석유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 아시아 국가로 유일한 OPEC 회원국 (OPEC내 5% 생산비중)
 - 석유/가스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22.9% (2001년)
 - 한국의 수입중 석유/가스가 61.5% (31억불) 차지 (2001년)

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구 2억 1천 2백만의 인구대국 (세계 4위)
- 월 최저임금 594천 루피아(59불) 수준의 저임금 노동시장
 - 전체 노동인구(9천만명)중 44%인 4천만명 실업추정

마. 외국자본 의존형 경제구조

- 자체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경제개발에 대외 의존도 심화
- 장기간 식민통치(네덜란드, 1602~1942)로 국민자본 형성 미흡

Ⅱ . 최근 경제동향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 세계 경기침체 및 국내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2001년 3.21%의 비교적 양호한 GDP 성장률 기록 (2000년 4.54%)
- 메가와띠 대통령직 승계(2001년 7월 22일)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신인도 제고로 경제회복 분위기 조성 및 각종 거시 경제지표 호전
- 2001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 특히 대미 테러 및 아프카니스탄 공격이후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세력의 반 서방 감정 악화로 경제 성장 저하

나. 환율

- 2002년 4월 Paris Club의 인도네시아 부채 상환기한 연장 및 IMF의 신규 차관 공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 회복 등이 루피아 환율 강세 주도 (5월초 현재 달러당 9,300루피아에 거래)
-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9,225~9,400 루피아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국내 실물경제 정체, 높은 실업률, 금융산업 구조조정 미비등 장기적으로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0,000루피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대미 테러 이후 수출오더 감소와 외국인 투자자의 탈인도네시아 등 악재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급격한 하강 국면으로 전환, 연초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0,500선에서 거래

다. 투자

- 2001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내·외국인 투자승인 건수는 총 79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
- 하반기, 특히 대미테러 사건 이후 산업계의 불황과 국내 반 서방 감정 증폭등 투자여건 악화로 2001년중 외국인 투자는 총 1,317건 90억불로 전년대비 건수 12.9%, 금액 41.5% 감소
- 2002년 1-2월중 내·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내·외국인 투자자들

이 인도네시아의 정치 및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

- 외국인 투자: 149건 4억 8,930만불(2001. 1~2월 대비 건수 및 금액 각각 21.2%, 79% 감소)

- 내국인 투자: 28건 1조 3,478억 루피아(2001. 1~2월 대비 건수 및 금액 각각 28.2%, 78% 감소)

라. 인플레이션

- 2001년 30%에 달하는 유류 및 전기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공공 요금 인상, 정치불안에 따른 루피아 약세가 물가를 자극,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연간 목표를 훨씬 초과한 12.95% 기록
- 2002년 연초 루피아 안정은 수입 생필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고 있어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2002년도 9.5%, 2003년 8.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마. 무역수지

- 2001년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586억불, 수입은 8.1% 감소한 309억불을 기록, 277억불의 무역흑자 실현
- 2001년 루피아화 평가절하 등 수출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불안, 대미테러 사태 이후 주요 수출시장으로 수출감소
- 수입의 경우 미 달러화 가치상승에 따른 산업계의 설비투자 감소로 전반적인 수입 감소를 주도
- 2002년 국제유가 상승,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안정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루피아 가치 상승은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수입의 경우 지난해 성장을 주도한 국내소비, 산업계의 설비투자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 무역수지 흑자 감소 전망

바. 외채

- 지난해말 인도네시아 대외부채는 GDP를 상회하는 1,376억불(공공 및 민간부채 합계)로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동 상환 외채는 인도네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매입을 부추켜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는 정책의 당면과제로 대외부채 상환일정 조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01년 인도네시아의 대외부채: 1,376억불
 - 정부부채: 53.9%, 민간부채: 46.1%
 - 1999년 1,481억불 / 2000년 1,417억불

○ 정부 외환보유고 : 277억불

-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통화정책을 통한 환율조정을 시도하는 한편 높은 은행 이자율을 유지해 산업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2. 수입시장 동향

가. 대외 교역동향

【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

(단위 : US\$억,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교역규모	952	761	724	956	895
(증가율)	(-2.7)	(-20.1)	(-4.9)	(32.0)	(-6.4)
수 출	535	488	485	621	586
(증가율)	(7.3)	(-8.6)	(-0.6)	(27.3)	(-5.5)
수 입	417	273	239	335	309
(증가율)	(-5.1)	(-34.4)	(-12.5)	(14.2)	(-8.1)

자료원 : Data Consult, WTA

나. 수출동향

- 2001년 상반기중 수출은 주요 외화 가득원인 원유, LPG와 전기기기, 종이 및 종이제품, 플라이 우드, 고무, 화학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2000년 상반기 대비 13.46% 증가
- 그러나 하반기중 국제 원유가격 하락과 세계경기 침체 특히,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전 품목에 걸친 수출 감소로 인하여 연간 수출은 감소를 기록

다. 수입동향

- 2001년 상반기중 국내 소비 증가와 내국인 투자증가에 따른 소비재 및 자본재, 원 부자재 수입 증가가 전체적인 수입증가를 주도
- 그러나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 특히 대미테러 사태 이후 주요 수입국의 수입오더의 감소에 따라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3.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의 내·외국인 투자동향 】

구 분		1999	2000	2001	증감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건)	1,068	1,433	1,317	-8.1
	금액(U\$백만)	10,630	14,974	9,028	-39.7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건)	204	287	283	-1.4
	금액(U\$백만)	239	690	369	-46.5
내국인 투자	프로젝트(건)	216	355	249	-29.9
	금액(Rp.십억)	52,465	92,410	58,673	-36.5

자료원 :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 위원회)

- 2001년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승인은 총 1,317건, 9,028백만불로 건수면에서 8.1%, 금액면에서 39.7% 감소함
- 내국인 투자는 총 249건 58,673십억 루피아로 2000년 대비 건수기준으로 29.9%, 금액기준으로는 36.5%씩 감소세 시현
- 월별로 2001년 5월까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 증가세를 보였으나 6월중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실시 되는 등 정치불안 요인 대두로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 9월 대미 테러사태 이후 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
- 2001년중 산업별 내 외국인 투자 비중
 - 내국인 투자 : 기초화학(38.1%), 식품(18.9%), 종이(8.1%), 주택·산업용 부동산(7.7%), 호텔·식당(4.2%), 섬유산업(3.8%), 건설(3.4%)
 - 외국인 투자 : 기초화학(25.6%), 서비스(16.9%), 호텔·식당(9.9%), 종이 지제품(8.2%), 철강·전기·기계(7.2%), 교통·창고·통신(4.1%), 수송장비(3.9%), 무역(3.8%), 섬유(3.6%) 식품(3.1%), 플랜테이션(3.0%)

Ⅲ .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현황

1. 수출현황 및 문제점

가. 한국 무역현황

(단위 : US\$백만,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교역	7,640	4,842	6,526	8,791	7,754
(증감율)	(5.9)	(-36.6)	(34.8)	(34.7)	(-11.8)
수 출	3,541	1,784	2,539	3,504	3,280
(증감율)	(10.7)	(-49.6)	(42.3)	(38.0)	(-6.4)
수 입	4,099	3,058	3,987	5,287	4,474
(증감율)	(2.1)	(-25.6)	(30.4)	(32.6)	(-15.4)
무역수지	-558	-1,274	-1,448	-1,783	-1,194

자료원 : 한국 관세청

나. 인도네시아 교역상 한국의 비중

- 한국은 인도네시아 4위의 수출 및 수입 대상국 (2001년)
 - 수입국 : 일본(15.1%), 미국(10.4%), 싱가포르(10.2%), 한국(7.1%), 중국(6.0%)의 순
 - 수출국 : 일본(23.1%), 미국(13.8%), 싱가포르(9.5%), 한국(6.7%), 중국(3.9%)의 순

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 주종 품목

- 수출 :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전자부품, 전자제품, 섬유 및 직물, 가죽제품, 건설중장비, 냉연강판, 발전기 등
- 수입 : 천연가스, 원유, 동광, 펄프, 유연탄, 합판, 지제품, 천연고무, 섬유사, 농산물 등

라. 인도네시아의 수입시장 여건

- 2001년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58.6억불을 기록

【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입 】

(단위 : 십억불,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53.4	48.8	44.4	62.1	58.6
- 석유가스	11.6	7.9	7.9	14.2	15.2
- 비석유가스	41.8	40.9	36.5	47.8	43.4
수 입	41.6	27.3	23.2	33.6	30.9
- 석유가스	3.9	2.7	3.0	1.9	5.6
- 비석유가스	37.7	24.6	20.2	35.5	25.3

자료원 : CIC, WTA

2. 호부진 요인

가. 호조 요인

- 점진적인 투자 및 소비심리 확산으로 경기회복 분위기 전환
- 채권국의 채무상환기간 연장, 국제 금융기관의 대 인도네시아 채무공여 재개
- 정부의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지속추진
- 민간기업 채무 탕감등 기업체질 강화를 통한 구매력 회복

나. 부진 요인

-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일본, 미국, EU로부터 수입수요 격감
- 인도네시아내 이슬람 세력의 반서방 정서 확산으로 외국인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심리 냉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내 자본시장 침체, 은행부분 기능 약화
-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남발

3. 투자진출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1967 - 2001년 기간중 누계기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규모는 1,145건 9,529백만불 (인도네시아 정부 승인기준)로 전체 외국 투자국가중 건수면에서 3위, 금액면에서 7위를 점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570여개사로 이들 한국 기업은 대부분 섬유 및 봉제, 신발, 건설, 운송, 완구, 화학, 전기 및 전자, 가발 제조등 제조업에 종사
- 한국계 기업은 약 50만명 정도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활동 인구(9천만명)의 0.56%를 고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내 한국계 기업의 수출비중은 섬유 봉제가 인도네시아 전체 섬유·봉제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신발 31%, 완구 33% 차지
- 한국 투자진출 기업은 인도네시아내 노동집약 산업부분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및 SOC 등 기간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음

【 주요 산업별 한국기업 현황 】

(단위 : 개사)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봉 제	123	완 구	27	금 융	12
건 설	38	화 학	23	가 발	12
신 발	37	가 구	18	인 쇄	10
무 역	37	가 방	13	기 타	172
운 송	35	전기전자	13	계	570

나. 문제점

- 노동 생산성 저하
 - 와히드대통령 집권 후 노사갈등 대두로 노동 생산성 급격 저하
 -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고급 생산기술 인력 부족

- 급격한 인건비 및 공공비용 상승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 최저임금 변화추이 : 1999년(Rp. 238,400), 2000년 (Rp. 286,000), 2001년(Rp. 344,257), 2002년 (Rp. 595,000)
 - 2001년 및 2002년 유류와 전기가격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 정치 및 치안 불안 (공권력 부재)
 - 수하르트 퇴진 이후 노동운동 심화 및 폭력적 노동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으로 노동쟁의시 효과적인 인 통제가 곤란
 - 인도네시아 치안부재로 해외 주요 바이어의 제 3 국 수입선 전환
-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로 경제시스템 비효율
 - 정부납품, 프로젝트 입찰 등에 절차상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인프라 문제
 - IMF 경제위기 이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공사 중단으로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높은 편이며 화물 운송중 컨테이너 도난 사례 빈발로 수출기업의 신용도 하락

IV. 진출 확대방안

1. 수출

가. 수출확대방안

- World Cup 개최국인 한국의 이미지 적극 활용
 -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World Cup을 개최하는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동경심 증대
 - 현지 학생, 직장인등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기존 단순 상품수출 노력에 더하여 현지 A/S망 확충,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한국상품의 우수성 인지노력 필요
-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개발, 소비계층 분화에 대비
 - 인도네시아 경제회복 및 최저임금 상승에 힘입어 중산층 확산 예상
동 중산층 확산으로 각종 소비재 시장의 급격한 확산으로 상품 구매시 디자인, 기능, 내구성 등 비가격 요인의 중요성 증대
 - 소비자 구매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 전국적인 판매망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내수시장 공략 필요
 - 아울러 현지 소비계층 분화에 대비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현지 화교자본 활용
 - 총인구의 5% 미만인 화교에 인도네시아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정·관계 주요 인사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정치권의 후원을 바탕으로 화교기업 지속적인 성장추세
 - 화교들은 특유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기업간 주식 교차소유, 이사직 교환, 합작, 결혼 등 기업과 기문간 연계 강화로 기업 상호간 이익과 불이익을 공유, 인도네시아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유지 및 특정기업에 대한 정치적 불이익 조치 사전예방
 - 화교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화교간 유대관계를 활용 용이한 사업정보 수집 및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
 - 동 화교기업과 연계를 통한 현지 자금조달, 정치권과의 인맥 형성, 화교주도의 도소매 판매망 활용, 사업정

보 수집등에 활용

□ 현지 수입상 세대 교체기 활용

- 인도네시아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는 화교 1세대를 대신하여 2세들의 경제계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 동 2세대와의 연계를 통한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제1세대의 경우 대부분 일본기업과의 독점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맥을 중시하는 화교의 특성은 동 1세대를 통한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에 장애물로 작용
- 동 2세대 경제인들은 대부분 현지 1세대 경제인의 2세들로써 부친의 기업을 인수하기보다는 새로이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바 동 2세대 경제인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진출 방안 강구가 바람직

□ 현지 투자진출 다각화 및 고도화 추진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의 특징은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 아울러 제조업 중에서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섬유, 의류, 신발, 목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치중
- 최근 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 확산과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렴한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이 사라질 전망이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업화 추진으로 공업원료, 부품, 기계장비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보다는 화학, 금속, 전기, 전자, 기계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 중화학 공업으로 업종 고도화 필요

□ 지역별 진출 거점 선정, 전국적인 거점망 확보

- 인도네시아는 넓은 영토와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생활방식, 인구분포, 경제수준 및 유통망의 차이가 다양함
- 따라서 전국적인 유통망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진출 거점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거리 및 교통상황 등을 염두에 두어야함
- 소비재의 경우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초기 거점에서 어느 정도 사업기반이 확보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 거점망 확보 필요

나. 수출유망품목

- 석유 및 역청유 : 주재국 원유정제 시설 부족에 기인, 수입선이 국영기관으로 일원화, 품질향상을 통해 가격

열위 극복 필요

- 화학원료 : 인도네시아의 화학산업 육성정책에 기인, 현지 시장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변화에 기민한 대응 필요
 - 파라크실렌, 테레프탈산과 염, 에틸렌 프로필렌 중합체, 프로필렌 중합체, 폴리에틸렌 등
- 식물, 원피 및 가죽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기업의 원부자재용으로 수입, 인도네시아의 완제품 수출국의 시장 변화에 전략적 대처필요
- 자동차 및 부품 : 인도네시아 승용차 수입시장 감소 및 현지 조립차량 판매 확대, 수입 자동차 사치세 인상으로 장기적으로 현지 조립라인 구축 및 부품 수출노력 필요
- 모터사이클 : 인도네시아 모터사이클 시장 급격 확대, 현지 조립생산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 경합치열
- 가전제품 : 인도네시아 내수소비 확대에 따라 TV, 냉장고, 에어컨 등 소비확대. 일본, 미국, EU 등 현지 생산 라인 보유기업과의 대응을 위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
- 진공펌프후드 : 일본제품의 제품 교체수요 한계, 한국산 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기존 시장 교체수요 확보노력 필요
- 변압기, 변환기 : 인도네시아 전력공급 불안정 및 전자제품 사용급증으로 관련제품 수입급증, 진출 초기 주요 거래선 확보노력 필요
- 직접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 주재국 IT산업 발전에 따른 수요증가, 현지 경쟁품목인 싱가포르 제품대비 품질 경쟁력 우위확보 필요
- 절연전선 케이블 : 인도네시아 경기회복 분위기를 반영한 산업 인프라, 특히 전력 인프라 수요증가 예상, 시장내 경쟁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은 관계로 안정적 거래선 발굴후 공격적 마케팅 필요
- 고철 : 인도네시아 국내 고철 공급부족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
- 금형제품 : 자동차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금형제품 수입수요 급증
- 중장비 : 2001년도 광업 및 농업분야 중장비 시장 급속 확대, 2002년 종이산업, 플렌테이션, 건설 분야 중심수요 확대 예상

다. 수출 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P사, 보안장비 시스템)

- 국내기업으로 설립 4년째 접어들고 있는 P사는 2001년 10월 1일부 무역관 지사화 사업 가입
- P사 지사화 사업 가입 이후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관련 바이어 50여개사를 접촉 수입관심도 조사와 아울러 관심있는 바이어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샘플 판매에 주력
- 현지 바이어의 제품 수입시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산 제품의 현지시장에서 품질 검증 문제임에 착안, 제품의 현지시장 진출 1 단계 전략으로 현지 기관에 동 제품 설치 추진

- 무역관은 1차적으로 현지진출 한인기관을 접촉, 제품 구입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현지 한인 국제학교로부터 관련제품 구입 오더 접수
 - 향후 한인 국제학교 설치를 필두로 현지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 중
- 실패사례 : T사
- 한국의 T사는 2000년 7월 해외 세일즈 활동 지원요청 후 자카르타 무역관 방문
 - 동사의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요청 접수후 무역관 사업 담당자는 동사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바이어를 물색, 동사와 거래알선에 노력한 결과 인도네시아 제2위의 대형 수입상과 연결에 성공
 - 동 한국업체 관계자가 자카르타를 방문, 방문당일 상기 수입상과 밤 1시가 넘도록 진지한 상담을 진행하였던 바, 동제품의 시장 진출 전망을 밝게 하였음
 - 그러나 한국기업 T사 자카르타 방문중 동 수입상의 최초 주문 물량 과소(연간 \$ 20만), 인도네시아 기업의 독점 에이전트 조건 수용요구 등으로 동 인도네시아기업과의 거래를 섣뚱 수락할 수 없는 입장에 봉착
 - 동 한국기업 귀국 후 인도네시아기업과의 거래조건 협상에만 4개월여를 소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기업이 동 제품의 수입선을 제3국으로 전환
 - 이 경우 한국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의사 결정 지연과 모호한태도로 인해 수출기회를 놓친 사례임

2. 투자진출

가. 투자진출 유망분야

- 현재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집중, 중공업 및 비 제조업 분야의 투자미진, 향후 경기 회복시 인프라, 관광등 비 제조업 사업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도 화학, 금속, 전자, 기계 등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고도화 필요
- 경기가 회복되는 향후 2-3년은 내수기반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급적 내수기반 보다는 수출기반 산업 투자가 바람직
- 인도네시아 경제의 현저한 회복이 예상되는 3-5년 이후의 장기적인 내수를 감안한 내수기반 산업 투자도 검토 필요

나.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

○ 마케팅 및 유통전략 혁신으로 내수시장 공략강화

- 과거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 내수판매의 경우에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서부자바 일부에 판매활동 집중
-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함께 소비시장이 확대추세에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공략을 위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을 통해 현지 소비계층의 분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전국적 판매망 확보 및 판매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가

○ 현지화로 사업기반 정착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은 대부분 모기업이 제품 및 기술개발을 전담, 현지 진출법인은 필요설비와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여 조립·생산하는 바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지 투자수요 및 기호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업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조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외국기업에게 부품과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괄생산 방식요구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R&D 비중을 높이고 현지부품 조달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현지 시장 적응력을 높여야함
- 아울러 투자기업의 중요직책(중간 관리자등)에 현지인을 채용하여 현지직원을 관리토록 하는 등 경영의 현지화 필요

○ 역내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장확대

- 현재까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 제품생산 및 제3국에 판매하는 단선적 생산, 판매방식을 취함
- AFTA 발효 등 ASEAN내 역내분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투자진출 업체의 생산 및 판매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동남아 각국에 생산 및 판매거점을 분산시키는 네트워크형 투자 고려필요
- 이러한 역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먼저 동남아 각국별 비교우위를 고려, 각국에 알맞은 투자부분을 찾아내고 생산 및 판매 역시 동남아 전역을 포괄하여 생산, 판매 나아가 연구개발 기능까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투자방식 전환

다. 투자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 스타네시아 (인도네시아 내수 신사복 시장진출)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중 대표기업의 하나인 PT. Starnesia Garment 는 '람세스' 라는 자사 고유 브랜드로 현지 내수 신사복 시장에 진출, 한국 봉제업체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자사 브랜드 진출에 성공한 기업으로 기록되었음
- PT. Starnesia는 약 4년에 걸친 상표 도메인 등록과정을 마치고 지난 1999년 10월 이후 SOGO 및 Taman Anggrek 등 2개의 백화점에 남성복 매장을 오픈하였음
- 현지에서 동 '람세스' 제품의 가격은 BOSS, KENZO, DAKS 등 세계 유명 브랜드 제품 대비 절반 수준으로 품질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고객은 주로 현지 화교와 일본인, 한국인으로 국내 체류자는 물론 해외여행, 인도네시아 방문 출장객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동사가 일본 Aoki의 OEM 제조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인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올해로 창업 12주년을 맞이하는 PT. STARNESIA는 그동안 AOKI, MARKS&SPENCER, JC PENNEY, LONDON FOG 등 세계 유명제품을 OEM으로 생산, 미주, 유럽, 일본 등 전세계로 연간 약 3천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동사의 '람세스' 브랜드의 내수시장 진출의 성공요인으로는 OEM 수출 과정에서 제품 고급화와 Fashion 개발의 Know-How 축적은 물론 과거 OEM 제품을 생산했던 경험으로 주요 구매자들로부터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임.

제4장 베트남

정영종

KOTRA 호치민 한국무역관 차장

I. 베트남 시장개관

1. 시장개황

□ 일반개황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면적 : 331,114km²(한반도의 약 1.5배)
- 수도 : 하노이시(235만명)
- 주요도시 : 호치민시(500만명), 하이퐁시(170만명)
- 인구 : 약 7,900만명 (2001년말 기준)
- 행정구역 : 61성(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등 4개특별시 포함)
- 종족 : 삨(Kinh)족(89%), 타이(Tay)족(2.0%), 타이(Thai)족(1.6%), 호아(Hoa)족 (1.5%) 등
- 언어 : 베트남어(일부 산악족은 고유언어 사용)
- 종교 : 불교(60%), 카톨릭교(10%), 기독교(3.0%), 기타
- 기후 : 북부-아열대, 남부-열대몬순
- 주요화폐 : 베트남동(Vietnamese Dong)

□ 경제개황

- 1인당 GDP : US\$ 400 (2000년)
- GDP : 4,408,000억 베트남동(약 US\$311억불) (2000년)
- GDP 성장율 : 7.3% (2001년)
- 산업생산 증가율 : 10.2% (2001년)
- 물가상승율 : 0.1% (2001년)
- 수출 : US\$ 150.3억 (2001년)
- 수입 : US\$ 161.6억 (2001년)
- 외환보유고 : USD10억 (1998년말 기준)
- 외채 : USD143억 (2001년 추정)
- 환율 : USD 1 = 15,210 VND (2002년 5월 3일 현재)

2. 시장특성

□ 상당한 시장규모와 무한한 잠재력

- 인구 8천만에 달하는 시장규모와 연평균 7% 이상의 고속성장
-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으로서의 역할 증대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계층간 소득수준 격차 심화로 고가품과 저가품 시장 공존
- 중소득층은 중저가 소비재, 고소득층은 고가 수입산 내구재 선호

□ 인프라개발 관련 시장수요 확대

- 통일 이후 인프라 황폐 가중, 경제개발의 전단계인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입
- 석유화학 등 기초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설비 수요 증대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되는 시장

-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 1998년 약 5,000개에 불과했던 민간기업체의 수가 2001년 현재 약 18,000개에 달함

□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는 시장

-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의 공업화 수준
- 우리나라가 원부자재 및 자본집약적 품목을 수출하고 농수산물 및 천연자원을 주로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수출입 구조

□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지닌 시장

- 부품소재산업 기반취약,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형성

Ⅱ . 최근 경제동향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 관

2005년 WTO 가입추진 목표아래 산업구조 개선,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수입시장 개방확대, 미-베무역 협정 발효 등 일련의 개혁정책이 지속되어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추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 될 전망

-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유지
 - 1987년 도이모이개혁정책 시행 이후 연평균 7%대의 고성장 유지
- 수출 신장세 유지
 - 19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25%의 수출 신장세 유지
-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확대 및 개방/개혁 추진으로 외국인투자 지속적 증가
 - 2001년말 현재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 3,046건, 37,861 백만불
- 2001년 12월 10일 미-베 무역협정 발효로 개방 및 개혁 본격 추진
 - 세계 최대시장인 대미시장 본격 진출 및 점진적인 시장개방 추진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가능
- 2005년 WTO 진출 목표
- 2010년에는 인구 1억의 아시아 거대시장중 하나로 부상 전망

나. 경제규모 및 성장률

- 베트남의 GDP 규모는 2000년 현재 311억불, 1인당 GDP는 약 400불로 저개발 국가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1987년 도이모이 개혁경제의 추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 유지

【 베트남의 연도별 경제성장 현황 】

(단위 : %)

년도	'90-'95평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경제성장률	9.5	9.3	8.8	5.8	4.5	6.7	7.3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다. 교역동향

- 2001년도 베트남의 대외수출은 섬유제품, 신발류, 수산물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한 150.3억불을 기록. 수입은 기계 및 플랜트, 식물, 철강제품 등의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3.3% 증가
- 2001년 12월 10일 미-베 무역협정의 발효로 향후 베트남의 교역량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대외교역 현황 】

(단위 : US\$억,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88(25.7)	93.2(5.9)	115.2(23.6)	144.5(25.4)	150.3(4.0)
수 입	112(1.8)	114.9(2.6)	116.3(1.2)	156.4(34.5)	161.6(3.3)
수 지	-24	-21.7	-1.1	-11.9	-11.3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주: ()안은 증가율

라. 산업생산 증가율

- 지속적인 수출호황 및 내수시장 확대에 힘입어 베트남의 산업 생산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11%의 증가세 유지

【 베트남의 산업생산 현황 】

(단위 :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산업생산 증가율	14.0	14.1	13.0	11.0	11.5	10.1	10.2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마. 환율

- 1998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동화의 평가절하(13%)를 실시 하였으나 실제 미반영으로 효과가 없자 1999년 2월부터 시장수급을 반영하는 일종의 변동환율제로 환율제도를 변경, 큰 폭의 평가절하보다는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유도

【 베트남 환율 변동 추이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환율(대달러화)	11,020	11,500	12,000	13,880	13,930	14,500	15,080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2. 수입시장 동향

가.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1998(증감율)	1999(증감율)	2000(증감율)	2001(증감율)
기계 및 플랜트	2,052(15.5)	2,005(-2.3)	2,571(28.2)	2,741.1(6.6)
석유제품	827(-24.4)	1,054(27.4)	2,058(95.3)	1,827.5(-11.2)
직물 및 의류원부자재	710(-20.3)	1,096(23.0)	1,422(29.7)	1,589.6(11.8)
철강제품	524(-15.5)	587(12.0)	1,406(38.6)	964.6(18.8)
비료	491(11.8)	464(-2.3)	509(9.6)	404.0(-20.6)
전자제품 및 부품류	135(-17.7)	518(283.7)	748(44.4)	503.0(-32.7)
플라스틱원자재	311(9.5)	346(11.3)	480(38.7)	494.7(3.1)
오토바이 및 부품	351(44.4)	399(13.7)	787(97.6)	669.7(-17.5)
화학제품	379(32.5)	485(28.0)	307(18.8)	361.0(18.8)
의약품	312(-17.5)	267(-14.4)	308(15.5)	295.6(-4.0)
합성섬유	175(10.1)	194(10.9)	231(18.9)	264.9(14.6)
살충제 및 원료	126(10.5)	133(5.6)	137(3.0)	110.0(-19.7)
종이류	97(6.6)	102(5.2)	142(38.5)	159.3(12.3)
자동차	130(-4.1)	89(-31.5)	134(51.1)	197.4(47.4)
면(cotton)	91(-17.3)	91(-)	101(11.0)	131.9(30.6)
자동차부품	70(-14.6)	77(10.0)	83(8.5)	308.7(270.6)

자료원 : 베트남상의, Vietnam Economic News

나. 주요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1998(증감율)	1999(증감율)	2000(증감율)	2001(증감율)
싱가포르	2,292(10.5)	1,883(-17.8)	2,760(46.6)	2,493(- 9.7)
일 본	1,470(3.0)	1,477(0.5)	2,251(52.4)	2,215(- 1.6)
대 만	1,370(-1.5)	1,497(9.3)	1,370(26.7)	2,020(6.5)
한 국	1,423(-8.5)	1,440(1.2)	1,730(20.1)	1,893(9.4)
중 국	511(24.9)	638(24.9)	1,423(123.0)	1,629(14.5)
태 국	674(18.4)	556(-17.5)	813(46.2)	802(- 1.4)
홍 콩	596(-1.9)	587(-1.5)	607(3.4)	553(- 8.7)
프 랑 스	381(-30.4)	301(-21.0)	329(9.3)	317(- 3.6)
미 국	326(-21.6)	335(2.8)	352(5.1)	411(16.8)
독 일	408(96.1)	270(-33.8)	303(11.8)	395(30.4)

자료원 : 베트남상의, Vietnam Economic News

3.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가. 최근 외국인투자 개황 및 특징

- 1988년 대외개방 이후 2001년 말까지 대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3,046건 378.6억불
- 아시아권 국가들의 투자진출 활발
 - 아시아 국가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전체 투자규모의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별로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순임
 - 한국은 총 투자규모 3,260백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약 8.6%의 점유율을 보임
- 한국, 대만은 노동집약적 제조분야에 중점투자
 - 한국, 대만의 투자는 제조업 분야위주(한국 및 대만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조에 중점투자, 일본은 자본집약적 제조에 중점투자) 싱가포르, 홍콩 등의 투자는 부동산 및 서비스분야에 집중

나. 경쟁국가별 대베트남 투자동향

▷ 대만기업

○ 노동집약적 투자에 집중

-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 외국인투자규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우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

○ 대베트남 제 2위의 외국인 투자국

- 대만의 대베트남 투자는 1988년부터 2001년 말까지 허가기준 누계로 332건 4,965백만불로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 제2위의 외국인 투자국
- 대만기업들의 주력 투자품목은 한국기업들의 주력 투자품목과 거의 일치해 의류, 가방, 신발류 등으로 우리기업들과의 대미시장 진출에 있어 치열한 경쟁 예상

▷ 일본기업

○ 자본집약적 분야에 투자중점

- 일본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한국 및 대만기업들과는 다르게 자본집약적 중공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투자지역이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에 집중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베트남 제3위의 외국인 투자국

-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1988년부터 2001년말까지 허가기준 누계로 758건 5,416백만불로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베트남 제3위의 외국인투자국가로 위치를 확립

▷ 미국기업

○ 베트남 제13위의 투자국

- 미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미-베 양국간 국교정상화 이전인 1991년부터 개별기업들의 투자로부터 이어져 2001년말까지 허가 기준 누계로 129건 107백만불로 대베트남 외국인투자국 중 13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수출목적 보다는 내수목적 투자 집중

- 미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는 수출용품 제조보다는 주로 베트남 내수시장을 겨냥한 코카·펄스콜라, 콜게이트, P&G, 김벌리클락 등 소비재 및 IT시장, 금융, KPMG, Auther Anderson 등 컨설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상기 언급한 분야중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미-베무역협정 발효전까지는 대부분의 분야가 외국인 단독투자에 제한이 있는 분야인 관계로 미국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 확대에 애로로 작용

【 주요국별 투자동향 】

(단위 : 건, US\$백만, %)

순 위	국 명	건 수	금 액 (투자비중)
1	싱가포르	244	6,881 (18.2)
2	대 만	758	5,416 (14.3)
3	일 본	332	4,065 (10.7)
4	한 국	332	3,260 (8.6)
5	홍 콩	220	2,824 (7.5)
6	프 랑 스	115	2,047 (5.4)
7	영국령 버진군도	131	1,763 (4.7)
8	네덜란드	44	1,651 (4.4)
9	러 시 아	37	1,486 (3.9)
10	영 국	34	1,140 (3.0)
11	태 국	100	1,112 (2.9)
12	미 국	129	1,068 (2.8)
13	말레이시아	94	1,018 (2.7)
	기 타	476	4,130 (10.9)
	계	3,046	37,861(100.0)

자료원 : MPI(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 1988-2001년까지 누계, 허가기준

Ⅲ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진출현황

1. 수출현황 및 문제점

가. 교역현황

-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교역은 1983년 민간기업의 간접교역이 재개된 이후 1988년 직교역이 본격화되면서 가속되기 시작
 - 1988년 61백만불에 불과하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0년 150백만 불, 1993년 818백만불, 1997년 1,842백만 불, 2001년에는 2,118백 만불에 달할 정도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한-베트남 교역현황 】

(단위 : US\$백만, %)

구 분	'98(증감율)	'99(증감율)	'00(증감율)	'01(증감율)	'02. 1-3월(증감율)
수 출	1,361(-15.1)	1,445(6.2)	1,686(16.7)	1,732(2.7)	408(4.7)
수 입	184(-22.9)	264(43.7)	322(22.0)	386(19.6)	99(23.9)
무역수지	1,177	1,181	1,364	1,346	309

자료원 : 한국 관세청

- 한-베트남 양국간 교역에 있어 수출입상품은 공산품과 1차산품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수출품목은 섬유류, 의약품, 철강류, 비료,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등임. 특히, 베트남의 공업화 지향적인 경제개발 추진에 따른 철강류 및 기계류,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료,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가전제품,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 및 임가공 진출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섬유직물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

(단위 : US\$천, %)

품 목	1999(증감율)	2000(증감율)	2001(증감율)
섬유류	396,107(14.1)	423,883(7.0)	404,150(- 4.7)
- 직물	292,481(10.9)	306,404(4.8)	293,027(- 4.4)
- 섬유사	43,897(18.4)	45,935(4.6)	41,475(- 9.7)
- 섬유제품등	39,984(13.4)	48,828(22.1)	49,127(- 0.6)
화학공업제품	214,271(-0.4)	251,769(17.5)	230,418(-8.5)
- 유기화학제품	129,529(5.4)	165,852(28.0)	133,820(-19.3)
- 무기화학제품	33,444(-25.4)	25,076(-25.0)	31,035(23.8)
- 제약원료및의약품	25,163(12.9)	32,324(28.5)	39,974(23.7)
- 기타화학공업제품	26,135(4.4)	28,517(9.1)	25,590(-10.3)
철강금속제품	120,102(-18.1)	110,968(-7.6)	129,991(17.1)
전기전자제품	119,884(-11.2)	133,282(11.2)	131,644(-1.2)
- 전자부품	49,544(- 6.5)	52,998(7.0)	50,893(-4.0)
- 가정용전기전자제품	24,478(-14.5)	29,249(19.5)	25,027(-14.4)
- 산업용전기전자제품	8,600(12.3)	17,101(98.8)	22,018(28.8)
- 전선	22,251(-29.1)	17,242(-22.5)	18,028(4.6)
일반기계류	97,314(7.9)	140,298(44.2)	140,277(-0.0)
수송기계 및 부품	98,713(22.6)	180,488(88.6)	267,332(48.1)
플라스틱제품	76,645(15.6)	75,426(-1.6)	73,850(-2.1)
유류제품(경유등)	30,832(- 5.7)	76,193(147.1)	95,339(25.1)
가죽및모피제품	74,459(35.7)	68,669(-7.8)	59,331(-13.6)
신발(운동화등)	57,563(32.9)	58,555(1.7)	56,909(-2.8)
종이및판지제품	48,506(30.6)	42,482(-12.4)	39,947(-6.0)
잡제품	41,015(46.0)	35,595(-13.2)	29,723(-16.5)
요업제품	18,865(-21.1)	15,419(-18.3)	9,968(-35.3)
기계요소,공구,금형	12,036(53.2)	16,626(38.1)	16,943(1.9)
신변세화	5,871(9.3)	4,585(-21.9)	3,888(-15.2)
정밀기계	6,471(- 8.8)	6,978(7.8)	6,039(- 5.0)
합 계	1,445,179(6.2)	1,686,025(16.7)	1,731,663(2.7)

자료원: 한국 관세청

나. 우리나라와의 주요경제 및 통상현안

▷ 한국측

○ 수출미수금 상환

-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베트남 은행들이 L/C를 이행하지 않아 약 1억불 정도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큰 곤경을 겪고있음. 지난 3년간 양국간 여러 채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1998년 7월말 한-베 외무장관 회담 및 1999년 4월 한국 산자부장관 베트남 방문시, 2000년 6월 한-베 경제공동위에서도 동 문제가 거론되어 베트남측은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베트남측

○ 일방적인 무역적자 개선

-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에 있어 2001년도 베트남은 한국에 총 386백만불을 수출한 반면, 한국으로부터 총 1,732백만불을 수입하여 1,346백만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 베트남의 WTO 가입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세계경제 편입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2005년까지 W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2. 투자진출현황 및 문제점

가. 투자현황

○ 우리의 대베트남 투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

- 국내의 임금 및 지가의 급속한 상승, 잦은 노사분규 등으로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되자 해외투자가 모색되면서 베트남이 적합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 1992년 한주통상이 종전 후 우리나라 최초로 대베트남 공식투자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급격히 확대되어 1988-2001년말 현재 약 3,260백만불에 달하고 있음

【 한국의 대베트남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 US\$천)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투자규모	1,368,690	826,200	699,400	13,000	176,300	75,400	106,508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노동집약적 봉제분야 투자에 집중

- 분야별 투자로는 1990년대 중반 대기업의 중공업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분적으로나마 활기를 띠었던 것과는 달리 가방, 봉제의류, 직물, 모자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봉제의류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건 44,899천불을 기록함으로써 2001년도 우리기업들의 총투자중 약 42%를 차지

【 2001년도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분야별 투자동향 】

(단위 : 건, US\$천)

분야	건 수	투자규모
봉제의류	20	44,899
조명기기	1	10,000
의 약	3	9,710
가 방	7	7,473
직 물	7	6,885
농 립 업	3	4,320
주방용품	2	3,500
가 구	3	2,875
오토바이 부품	2	2,500
수 산 업	2	1,634
모 자	2	900
신발부자재	2	760
기 타	20	11,052
총 계	74	106,508

자료원: 베트남투자기획부(MPI)

주: 투자허가 기준

○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

- 규모면에서는 투자허가를 득한 기업 모두가 중소기업으로 500만 불 이상의 투자규모는 3건(H사-봉제의류,

W사-조명기기, U사- 의약품)에 불과하며 100만불 이하의 투자건수가 45건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도 우리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소규모투자 형태를 이루었음

【 2001년 규모별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동향 】

투 자 규 모	투자업체수 (개사)
1,000만불 이상	2
500-1,000만불	1
200-500만불	11
100-200만불	15
100만불 이하	45

자료원 : 베트남투자기획부(MPI)

○ 남부지역에 투자집중

- 투자지역을 살펴보면 2001년중 우리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한 빈주영성, 동나이성, 타이닌성 등 남부지역에 총 62건의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전체투자 72건중 약 84%가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물류시설 및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높은 노동력 확보, 기업간 정보교환, 비즈니스 환경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북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1년 지역별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동향 】

(단위 : 건)

투자규모	투자건수
호치민시	30
빈주영성	20
동나이성	7
타이닌성	5
하노이시	3
하이퐁시	2
기 타	9

자료원 : 베트남투자기획부(MPI)

○ IT 등 첨단분야 투자도 관심

- 2001년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IT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임. 벽산인포컴과 EC PLAZA에서 베트남 현지인력을 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한국으로 역수출코자 현지투자를 시행하였음. 이는 한국의 IT 노동인력의 부족과 베트남의 IT산업에 대한 태동단계에서 기술이전의 효과뿐만 아닌 새로운 IT투자모델로 정착할 수 있음을 암시
- 또한 통계상으로는 싱가포르 투자로 잡혀져 있으나 SK텔레콤, LG텔레콤, 동아일렉콤 3개사가 베트남 통신업체와 경영협력계약 방식으로 2억 3천만불 규모의 CDMA 이동통신사업 투자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우리 이동통신기술의 대베트남 선점이 2002년 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IV. 진출확대 방안

1. 수출

가. 수출확대 방안

- 대선진국 및 ASEAN 우회수출 전진기지로서의 현지투자 확대
- 미국과 정상교역관계(NTR) 회복으로 대미시장 본격진출 가능
 - 40-90%에 이르던 대미수출시 관세가 평균 4%대로 대폭 하락
- EU 등 선진국 수출확대를 위한 대베트남 투자
 - EU에서 베트남산 제품 우수 평가
- AFTA 실현에 대비한 현지투자
 - CEPT(ASEAN 공동실효관세) 적용으로 ASEAN 역내국가에서 제조시 관세 혜택
- 현지 유통망 진출확대
- 현지 중대형 유통망(백화점, 상설판매장 등)에 대한 진출확대를 통해 한국제품 진출의 시너지효과 창출
- 중소기업 및 대기업 연계를 통한 진출 강화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현지 정보에 밝으며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대기업 현지 대표사무소와의 연계진출 모색
- 기업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활동 강화
- 현지시장이 브랜드 시장임을 감안, 스타 마케팅 등 각종 국가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확대 필요

나. 수출유망 품목

〈 2002년도 주요 수출품목별 시장 전망 〉

- 수출증가 예상 품목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섬유류, 의약품, 가죽 및 모피제품, 전자부품 등
- 수출감소 예상 품목 :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종이제품, 유류제품 등

〈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

□ 무선통신기기

- 2002년중 CDMA 사업개시에 따른 무선통신기기 수요 급증
 - CDMA 사업주체가 한국기업으로 한국산 무선통신기기 수입전망

□ 전자부품

-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인한 TV수요 급증 등에 따른 전자부품 수입수요 증가 전망

□ 철강제품

- 베트남 철강제품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이나 우리의 대베트남 수출여건은 불투명
 - 태국, 대만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 석유화학제품

- 동남아산 대비 가격경쟁력 저위로 시장 점유율 급락 전망
 -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산 시장점유율 급속 확대

□ 섬유제품

- 완제품은 수출감소, 원부자재는 수출증가
 - 베트남 대미수출 정상화에 따른 현지내수 공급 및 수출확대 기인

□ 자동차

- 2000년중 중고버스 대규모 수입으로 2001년중 자동차 수입 감소 전망
 - 2000년 한국의 유헤버스(백화점용) 베트남 대량반입

【 2002년도 수출유망품목 추천 】

품목명(MTI)	추천사유	경쟁국
무선통신기기(712)	신규수요 창출	EU, 미국 등
섬유직물(43)	수입수요 확대	대만, 중국
가죽 및 모피(23)	수입수요 확대	이탈리아, 대만, 중국
전자부품(72)	수입수요 확대	대만, 일본
의약품(13)	수입수요 확대	EU, 인도, 태국

다. 수출 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 철저한 사전 준비의 세일즈출장을 통한 수출성약

- 쇼파용 원단 제조·수출업체인 국내 N사는 2001년 3월 호치민시 세일즈출장을 시행한 결과, 현지에서 20 피트 컨테이너 분량의 쇼파원단 수출계약을 성사시킴
- 주재국 세일즈출장이 처음인 동사의 이 같은 성약 성공요인은 사전 무역관이 제공한 바이어 및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출장시행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바이어와의 접촉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관에 재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철저한 출장전 준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됨
- 동사는 출장시 경험했던 가격 및 디자인 등 현지시장 감각을 바탕으로 현지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면 향후 바이어로부터의 오더 확대 및 지속적 시장공략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임

□ 실패사례

○ 베트남 민간상업은행의 수출대금 미수금 문제발생

- 베트남 VP BANK, Viet Hoa BANK 등 민간상업은행들의 부실로 12개 국내기업들의 수출상품 L/C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아 2001년도말 현재 총 97백여만불의 수출대금 미수 문제가 발생
- 이의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는 물론 양국 정부간 채널을 통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베트남 채무은행들이 대부분 민간은행인 관계로 정부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대베트남 수출시 L/C방식의 거래에 있어서도 개설은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신용도 조사 및 신용도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L/C에 대한 재확인(Reconfirm)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2. 투자 진출

가. 투자진출 유망분야

□ 섬유분야

-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인 섬유산업은 베트남의 전형적인 수출산업으로 기반을 형성해 왔음. 하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 베트남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구소련 및 동구가 몰락하고 베트남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해야 했음
- 국내시장수요 또한 소득수준의 개선으로 인해 저품질 저가위주의 구매동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품질 수요로 전환
- 이러한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은 베트남 섬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전환점을 가져왔음
 -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키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시장개방
 - 과거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으로부터 민간기업으로의 빠른 전환
 - 베트남의 국제사회 진출 가속 : 미국과의 국교정상화(1995), ASEAN회원국(1995) 및 APEC 회원국 가입(1998) 등
 - EU와의 섬유류 무역협정 서명(1996)
 - 미-베무역협정 발효(2001년 12월 10일)

【 베트남 섬유산업 현황 】

(단위 : US\$백만)

구 분	1996	1997	1998
시장규모(내수)	285.3	272.6	435.5
국내생산	298.5	339.8	387.7
수입규모	394.3	426.5	572.8
수출규모	407.5	493.7	525.0

자료원 : US NTDB

- 베트남 정부는 섬유산업이 비교적 투자비 부담이 여타산업에 비해 적은 반면 고용, 수출증대 등 유발효과가 크다는 점이 베트남 경제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아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국내기업의 시설교체에 주력, 전국적으로 섬유산업 육성한다는 방침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섬유산업을 1996-2010년간 평균 15% 성장 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장기종합계

획을 수립

- 노후시설 · 장비 교체(改替)
 -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 추진(2010년까지 20년 이상된 시설 및 장비 50% 이상 교체)
- 원료생산 및 공급계획
 - 2000년까지 면사 30~50% 국내생산 · 공급
 - 2010년까지 면사 10만톤, 실크 1만톤, PE 9만톤, Yam 10만톤 생산계획

□ 신발분야

- 베트남 신발산업은 섬유산업과 함께 주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신발류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규모의 약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베트남 신발류의 성장과 함께 신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원부자재 공급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약 80%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베트남 신발 및 가방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련 부자재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999년 기준 베트남에서 신발생산은 약 1억 2천만족 정도이며 이중 피혁류 신발은 약 70% 정도이며 나머지는 비피혁 제품임

【 베트남 피혁류 신발생산규모 】

(단위 : 천족)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산규모	44,460	61,785	79,289	77,037	87,018	93,000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피혁류 수입시장은 대만산 및 한국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대만산 및 한국산 피혁제품이 대베트남 수입피혁제품 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한국산의 경우 대만산보다 가격이 약 10-20% 정도 높으나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를 형성

□ 자본집약적 분야

○ 전기전자제품

- 최근 전기전자 분야의 외국인투자 증가와 함께 베트남 생산 전기전자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음. 이에 따라 베트남 내수 뿐 아니라 인근 ASEAN국가로의 수출확대가 가능한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임
-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경우 특히 TV(평면TV), 냉장고, VCR, DVD 등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자동차(오토바이 및 부품 포함)

- 최근 일부 외국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수시장 뿐 아니라 인근 ASEAN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였음

【 2005년까지 주요 ASEAN 국가 자동차 수요예상 】

(단위 : 1,000대)

순 위	국 가	수요예상
1	태 국	690
2	말레이시아	525
3	인도네시아	400
4	필 리 핀	190
총 계		1,805

자료원 :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Study

-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격이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태국의 유사한 차종에 비해 150% 이상) 높지만 이는 내국산업 보호를 위한 베트남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임
- 베트남 정부의 국산화정책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베트남 생산 자동차 뿐 아니라 자동차부품도 인근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등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임

○ IT 분야

- ASEAN지역에 수출되는 IT제품 중 주요 품목군은 컴퓨터 부분품 및 부품임. 베트남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력은 컴퓨터 조립 및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향후 5-10년 이내에 최대 수출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 목표시장은 이미 외국인투자유치로 동 분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밖에 컴퓨터산업과 관련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까운 시일내 급속히 발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값싼 양질의 우수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은 베트남 시장의 특성을 잘 활용할 경우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분야에서 베트남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이 결합된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음

나. 효율적인 투자진출방안

(1) 종합진출 전략

-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투자,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집약적 투자도 고려
 - 미-베무역협정으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되는 분야는 봉제 등 노동집약적 분야
 - 미국과의 정상교역 시행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되는 외국기업은 노동집약적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한국 및 대만기업으로 평가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베무역협정 시행에 따라 큰 폭의 수요가 예상되는 의류, 신발류, 가방류, 봉제완구류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한 투자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
 - 투자지역의 다변화 추진
 - 현재 우리기업들의 대베트남 노동집약적 분야의 투자중 80% 이상이 호치민을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 임금인상, 노사분규 등 부작용도 빈번함. 따라서 최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도 고려
 -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됨
 - 무역협정 시행으로 그동안 선진국기업들의 진출이 미진했던 IT, 전기/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창출분야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베트남 진출확대를 위해 노동집약적 상품 이외에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집약적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모색 필요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진출 모색
 -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베트남 진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계, 베트남 진출도 고려
 - 중소기업은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에만 전념하고 대기업이나 종합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시장정보, 마케팅 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베트남 초기 진출 방법중 하나로 고려할 만함

(2) 대 미국 수출전진 기지로서의 대베트남 투자전략

〈 현 황 〉

- 2001년 7월 12일 역사적인 미-베정상교역을 위한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1년 12월 10일 전격적인 양국간 정상교역 시행
- 미-베무역협정에 따른 양국간 정상교역 시행으로 베트남의 대미수출은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의 주요품목별 대미수출 현황 】

(단위 : US\$천, %)

주요품목	2000	2001(증감율)
수산물	304,359	482,424 (59.0)
신발류	87,793	114,230 (30.1)
원유	91,370	225,164 (146.4)
커피	69,932	60,016 (-14.2)
섬유류	49,569	47,461 (-4.3)
수공업품	13,091	19,222 (46.8)
쌀	10,656	7,156 (-32.9)
고무	1,563	2,130 (32.3)
채소	2,178	1,971 (-9.5)
차	374	790 (111.2)
총 수출액	732,440	1,065,335 (45.5)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 미-베무역협정 시행의 의의 〉

-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및 대외개방 의지 확인 및 인정
 - 미국중심 세계경제권으로 편입과 외국인투자자 신뢰회복
-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진출 가시화
 - 베트남산 봉제제품, 농수산물 대미 수출량 급신장 예상
- 베트남 경제의 성장요인 확보
 - 미국 자본, 서비스 및 기술유입으로 인한 베트남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

- 베트남 경제규범의 국제화를 위한 초석 마련
 - 무역 및 외국인투자 규제조치 철폐 및 완화 등
- 베트남의 서비스 및 정보통신시장 개방 확대
 - 정보통신, 건축, 금융, 보험, 광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확대

〈 마베 무역협정이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

- 미국
 - 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 신시장 확보
 - 원유, 쌀, 커피, 수산물 공급선의 안정적 확보
 - 저가의 신발, 의류, 가방 등 공급선 확보
- 베트남
 - 대미 관세율 인하(중전 평균 40% → 시행 후 평균 4%)로 대미 수출 급증
- 외국인 투자자 유치확대
 - 개방, 개혁 가속으로 WTO 등 국제사회 진출 돌파구 마련

〈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 유리한 점
 - 베트남 내수시장 비즈니스 기회 확대
 - 베트남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 예상
 - 투자의 안정화 및 자율경영권 점진적 확대 예상
 - 단계적인 개방 및 외국인투자 규제 철폐, 완화
 - 대미, 대베트남 섬유, 가방, 신발 등 노동집약상품 관련제품 수출 증가
- 불리한 점
 - 생산코스트 증가
 - 물가 및 임금상승 예상
 - 경쟁심화
 - 대만, 홍콩 및 신규진출 우리기업간 생산능력 확보경쟁 심화예상

- 미국 등 서방선진기업들의 진출확대에 따른 서비스 산업부문의 경쟁 심화

다. 투자 성공사례

〈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투자성공 〉

- 호치민시 구찌에 위치한 S사는 1999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장에서 베트남내 100% 외국투자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이 선정하는 산업안전, 위생 및 노사화합 우수 업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 100% 한국 단독투자 법인인 S사는 신발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한국인 30여명과 베트남 종업원 5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베트남 근로자 대다수가 미싱 등 가벼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를 조작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3일간의 회사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각 기계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안전 표시판을 부착하고, 근로자들의 부주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가 하면, 제조공정상 Solvent Type의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격이 비싸더라도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는 Water Base Type으로 교체하는 등 종업원 건강보호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음
-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환기설비를 보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정수기 설치 및 Stainless 배관을 통하여 위생적인 식수를 제공하고 있음
- 매월 정기적인 노사회의를 개최하여 노조의 건의사항 및 회사의 애로사항을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상호불신 및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내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여 종업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회사의 월간 실적 및 차월 계획 등을 매월 발표하고 우수사원 포상제도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음
- 동사는 베트남 진출초기인 1996년 베트남 근로자 폭행사건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고 이후 수 차례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등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사업장이었으나 그 후 회사 관리자들의 집중적인 노무관리 개선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베트남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ASEAN 진출 확대 방안

발행인 : 오 영 교

발행처 : K O T R A

발행일 : 2002년 5월 21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서초우체국 사서함 101호

전화 :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인쇄처 : 화신문화 ☎ 02-2277-0624

가격 : 20,000원